한국경제학보 제21권 제2호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s Vol. 21, No. 2(Autumn 2014)

해방 전후 崔虎鎭의 학문세계와 학술활동

吳 鎭 錫*

요 약

본고는 권력과 금전의 유혹에 초연한 자세를 유지한 채 오로지 강단과 연구실을 지키며 후학 양성과 연구에 매진해 한국 경제학의 발달과정에서 큰 업적을 남긴 崔虎鎭을 대상으로 그의 학문세계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검토한 논문이다. 그는 집안의 내력과 관련하여 일찍부터 투철한 배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성전문 법과에서 수학하면서 김광진과 백남운의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을 둘러싼 논쟁을 지켜보며 경제사연구에 뜻을 굳히고 나름의 연구방향을 모색하였다. 이후 구주제대에 유학하면서 전공을 경제학으로 바꾸고 당대 세계학계의 유력한 경제이론들을 비교적 균형 잡힌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배웠다. 특히 자본론과 국부론 모두를 정독시키며 좌우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경제학 연구를 강조했던 지도교수 波多野鼎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유학시절 형성된 열성적인 학업태도의 결과 그는 1942년에 『근대조선경제사』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해방 이후 그는 백남운의 영향 아래 학문과 지식을 활용해 신국가건설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해 조선학술원, 민족문화연구소 등에서 활약하고 신설된 경성대학 경제학과의 교수가 되어 이 학과를 한국 최고의 경제학 고등교육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어로 된 경제학 교과서 저술에 힘을 기울였고, 한국경제사연구에도 매진하여 『근대조선경제사연구 제1권』을 저술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한국사회의 '아시아적 정체성'을 해명하는 데에 연구의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그의 '정체성론'은 '아시아적'이라는 특수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특수성의 농도에 따라서는 보편적인 세계사적 발전법칙의 관철을 부정하는 이론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1960년대에 들어서 신진 학자들에 의해 이른바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한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그의 연구는 극복대상으로 설정되었다.

주제분류 : B030106
핵심 주제어 : 최호진, 백남운, 김광진, 근대조선경제사,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 배재대학교 공공정책학과 부교수, e-mail: jamesoh@pcu.ac.kr

Ⅰ. 머리말

한국에 서구경제학이 도입된 지 백년을 넘어섰다.[1] 그간 한국경제의 압축 성장 배후에는 경제학의 역할이 적지 않게 자리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학계에서는 서구경제학의 도입과 보급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작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여러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한편으로는 연희전문, 보성전문, 그리고 경성제대와 같은 초창기 경제학을 전파한 고등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교수진, 교육과정, 학풍과 연구경향 등을 일종의 학교사의 관점에서 정리해 왔으며,[2]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경제학 고등교육기관을 비롯해 학계에 몸담았던 초창기 경제학자들의 학문과 사상을 개인별 혹은 집단별로 치밀한 사례연구로 검토해 왔다.[3]

그러나 그간의 연구들은 연구사적으로 약간 아쉬움도 남겼다. 그동안의 사례연구들이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주로 활약한 경제학자를 검토하는 데에

---

1) 李基俊, 『韓末西歐經濟學導入史 硏究』, 一潮閣, 1985; 李基俊, 『敎育韓國經濟學發達史』, 一潮閣, 1983; 李基俊, 「韓末의 西歐經濟學導入과 日帝下의 經濟學」, 『經濟論集』, 26-4, 1987; 조기준, 「韓國 經濟學의 始原에 관한 硏究」, 『近代西歐學問의 受容과 普專』, 고려대학교출판부, 1986.

2) 윤기중, 「1920년대와 1930년대의 한국경제학계 동향」, 『延世經濟硏究』, 4-2, 1997; 홍성찬, 「일제하 연전 상과의 경제학풍과 '경제연구회' 사건」, 『근대학문의 형성과 연희전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5; 李秀日, 「1920~1930년대 한국의 經濟學風과 經濟硏究의 동향-延專 商科 및 普專 商科 중심으로」, 『延世經濟硏究』, 4-2, 1997; 김균·이헌창 편, 『한국 경제학의 발달과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정근식 외, 『식민지권력과 근대지식 : 경성제국대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정선이, 『경성제국대학 연구』, 문음사, 2002.

3) 윤기중, 「백남운의 학문세계와 사상」, 『한국현대사연구』, 창간호, 1998; 方基中, 「白南雲의 學問과 思想」, 『延世經濟硏究』, 1, 1994;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홍성찬, 「한국 근현대 이순탁의 정치경제사상」, 『역사문제연구』, 1, 1996; 홍성찬, 「曉亭 李順鐸의 생애와 사상」, 『延世經濟硏究』, 4-2, 1997; 방기중, 「일제하 李勳求의 農業論과 經濟自立思想」, 『역사문제연구』, 1, 1996; 이수일, 「일제강점·해방기 印貞植의 경제사상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1; 이수일, 「일제하 박문규의 현실인식과 경제사상 연구」, 『역사문제연구』, 1, 1996; 이상호, 「윤행중의 '이론경제학'과 한국의 맑스주의」, 『韓國人物史硏究』, 11, 2009; 홍종욱, 「해방을 전후한 경제통제론의 전개-박극채·윤행중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64, 2007; 吳鎭錫, 「일제하·미군정기 韓昇寅의 政治活動과 經濟認識」, 『연세경제연구』, 8-1, 2001; 오대록, 「일제강점기 常山 金度演의 현실인식과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8, 2011; 李秀日, 「美國 유학시절 維石 趙炳玉의 활동과 '近代'의 수용」, 『典農史論』, 7, 2001; 李秀日, 「1920年代 중후반 維石 趙炳玉의 民族運動과 現實認識」『역사와실학』, 15·16, 2000; 이수일, 『1930년대 전반 '성대그룹'의 반관학 이념과 사회운동론』,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3.

집중되어 해방이후 남한에서 경제학을 연구 전파한 경제학자를 사례연구로 다루는 데에는 다소 소홀하였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사를 염두에 두고 한국 경제학의 발달 과정에서 큰 족적을 남긴 崔虎鎭(1914.9.20~2010.9.9) 교수를 대상으로 그의 학문세계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사례연구로 검토하고자 한다. 최호진은 보성전문 법과, 九州帝大 경제학과 등에서 수학하며 서구경제학을 체득하였고, 해방이후 경성대학(서울대학), 동국대학, 중앙대학, 연세대학 등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면서 수많은 제자를 배출하는 한편, 주전공인 한국경제사의 논문과 연구서뿐만 아니라 경제사, 경제원론, 화폐금융론, 재정학 등 다수의 경제학 교과서, 그리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다룬 경제논설 등을 집필하여[4] 경제학계는 물론이고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던 학계의 거목이었다. 특히 그는 해방 직후의 혼란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다수의 일급 연구자들이 상실되어 사실상 공백상태에 놓인 경제학계에서 정치권력과 금전의 유혹에 초연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강단과 연구실을 지킨 인물이었다.[5] 게다가 전임교수가 턱없이 부족한 학계에서 자신이 속한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을 오가며 강의해 해방 이후 경제학도 가운데 그의 강의나 저서를 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이며,[6] 한국경제학회의 창설을 주도해 장기간 회장직을 맡으며 학계의 발전에도 크게 공헌한 학자였다.

따라서 그의 학문세계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검토하는 일은 한국 경제학의 발달사를 체계화하고 특히 해방 이후 남한 경제학의 동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연구주제이기도 하다. 이에 그간 학계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그의 사상과 학술활동을 해명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7] 여기에서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가운

4) 그의 논설은 여러 차례 책으로 편찬되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최호진, 『한국경제 50년 논선』, 전3권, 세경사, 2001으로 묶여 나왔다.
5) 그는 학자의 본분은 연구와 강의에 있음을 지적하고 금전과 권력의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恩師를 찾아서(2)」, 『京鄕新聞』, 1980.1.19.
6) 『경기인백년사』, 京畿高等學校同窓會, 2000, 292쪽. 대학의 전임교수가 부족한 시절에는 여러 대학의 대학원생들이 그의 집에서 함께 강의를 들어 신당동 자택은 속칭 "연합대학원"으로 불릴 정도였다. 『京鄕新聞』, 1975.5.3.
7) 윤기중, 「한국경제사에 전념한 최호진」, 『학문의 길 인생의 길』, 역사비평사, 2000; 윤기중, 「반세기 한국경제의 산 증인-최호진 박사」, 『대학교육』, 106, 2000, 68-71쪽; 洪性讚, 「최호진의 경제사 연구와 저술의 사회사: 1940~60년대」, 『동방학지』, 154, 2011. 본고는 앞의 연구성과에 크게 의존하였음을 밝힌다.

데, 그의 학문세계의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되는 해방 전후시기(1930~1950년대)를 대상으로 그의 학문세계 형성의 경로를 추적하고 그의 학술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사상적 특징을 해명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특히 다음의 몇 가지 점에 유의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그의 학문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경제사상 형성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해방 이전 한국과 일본에서의 경제학 수학과정, 그리고 성장배경 등을 면밀히 추적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연구 방법상의 난제가 놓여 있다. 그는 학술연구를 통해 수많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지만 그의 생애 전반을 이해하는 데에 충분한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다. 성장배경, 학업과정, 학술활동 등을 상세히 기술한 체계적인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남기지 않았고 때때로 잡지사나 신문사의 의뢰에 의하여 단편적으로 주제를 정하여 쓴 기고문이나 인터뷰 등을 엮어 만든 책으로 이를 대신하였다.[8] 따라서 이 기록에는 성장배경이나 학업과정에서 중요한 계기를 이룬 사건에 대해서 단편적인 언급에 그친 경우가 많았고, 자신과 관련된 사실을 에둘러 말한 그의 독특한 화법 때문에 그가 의도했든 그러지 않았든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의 학문세계가 어떻게 형성, 전개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양한 방증자료를 동원해 되도록 상세히 규명하고자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자칫 사실관계의 설명이 불분명하거나 잘못 유추 해석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둘째는 해방 이후 학문세계의 본격적인 전개과정에서 시기별로 그의 학술활동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검토하는 일이다. 사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치적 사건, 사회경제적 요인과 개인적인 환경변화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사상체계가 변화, 발전해 나가는데 그가 살았던 한국 근현대는 일제강점,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 4.19의거, 5.16쿠데타와 같은 굵직한 사건으로 점철되어 극심한 변화를 겪었다. 따라서 해방 이후 극심한 정세 변화 속에서 그의 사상체계, 학문세계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는 해방 이후 남한 경제학계의 동향을 살피는 데에도 유익한 소재가 아닐 수 없다.

---

8) 최호진, 『나의 학문 나의 인생』, 매일경제신문사, 1991; 최호진, 「일제말 전시하에서의 학문편력과 해방 후 경제학과 창설」, 『학문의 길 인생의 길』, 역사비평사, 2000.

Ⅱ. 해방 이전 학문세계의 형성

1. 성장배경과 반제국주의

최호진은 1914년 9월 20일(음력 8월 1일)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나 서울 종로에서 자랐다.[9] 부친은 대한제국 때 陸軍武官學校 主事를 지낸 崔奎濂(1865~1960)이고,[10] 모친은 개화기 초기부터 독실한 기독교 집안 출신이라고 한다.[11] 그런데 부친의 가계는 대대로 의과를 급제하여 혜민서나 전의감의 주부, 교수, 직장 등을 지내거나 陰陽科(雲科)에 급제하여 관상감의 정, 첨정, 판관, 주부, 교수, 직장 등을 지낸 인물들을 다수 배출한 가문이었다. 최호진의 7대조인 宅謙 아래 5대에 걸친 인원 93명(출계한 인원과 사위 제외) 가운데에서 의과와 음양과에 급제하거나 관직을 지낸 인물은 모두 39명(41.9%)에 달하였다. 특히 최호진의 6대조인 3남 慶玉 이하 13명 가운데에서는 무려 11명(84.6%)이 의과 혹은 음양과 출신의 관직을 지낼 정도였다. 전형적인 '기술직 중인' 가문이었던 셈이다.

조선 후기 기술직 중인은 대체로 역과, 의과, 음양과, 율과 등의 잡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하는 관료를 일컬었다.[12] 향리나 아전을 비롯한 중인 가운데에서도 최상층부를 형성한 계층으로서 비록 문과, 무과 출신의 양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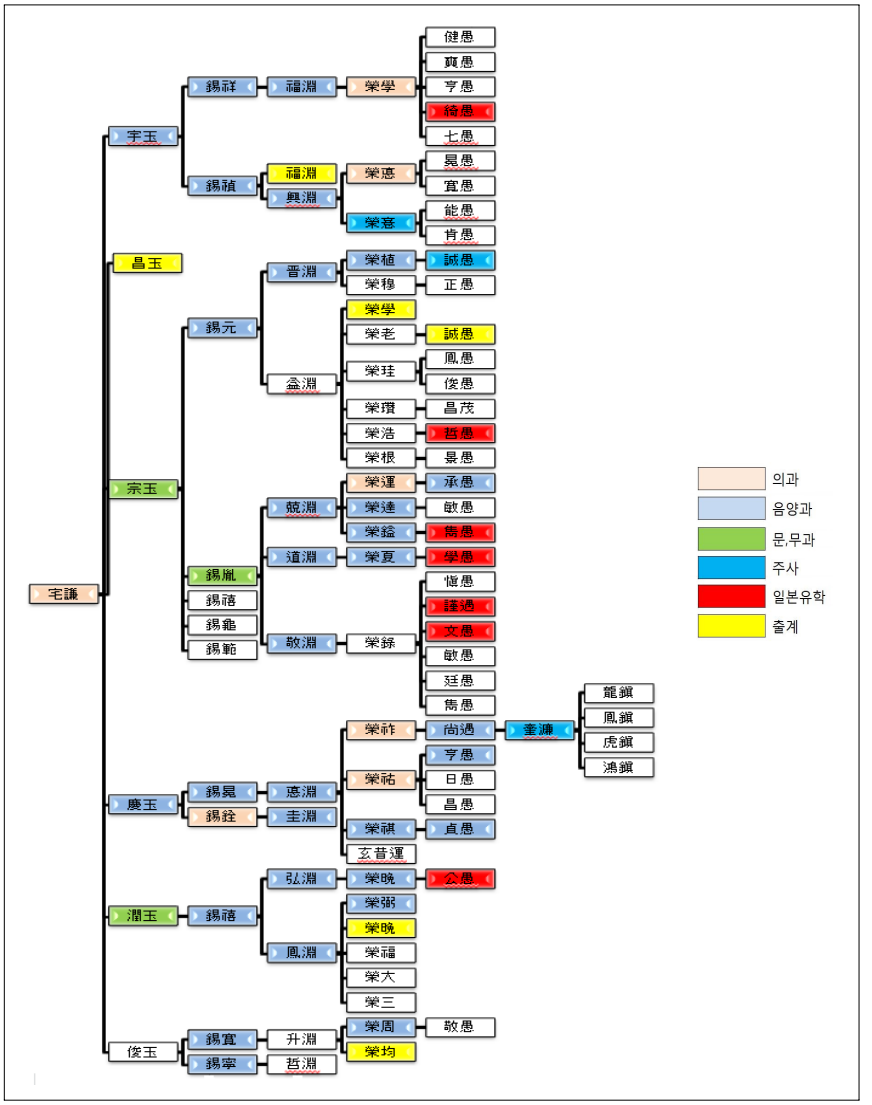
9) 외가가 있는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윤석범 교수님 교시. 본가는 서울이었는데, 그의 부친이 1907년경에 작성한 이력서에는 주소지가 漢城 中署 帽谷 五十三統 十二戶로 기재되어 있다. 현재 종로구 장사동에 해당된다. 國史編纂委員會 편, 『大韓帝國官員履歷書』, 探求堂, 1972, 678쪽.

10) 원래 이름은 崔奎淳이었으나 1906년 4월 崔奎濂으로 개명하였다. 『皇城新聞』, 1904.4.18; 『官報』, 제2802호, 1904.4.16; 『官報』, 제3297호, 1905.11.15; 『官報』, 제3437호, 1906.4.26; 『大韓帝國官僚史硏究(Ⅲ)』, 延世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1995, 712쪽.

11) 최호진, 앞의 책, 1991, 402쪽. 이하 별다른 주가 없는 한 최호진의 생애는 이 책에 의거함.

12) 기술직 중인에 대해서는 이하 별다른 주가 없는 한 김두헌, 「『姓源錄』을 통해서 본 서울 중인 가계 연구」, 『서울학연구』, 39, 2010; 김두헌, 「19세기 운학 완천 합격자와 그들의 가계」, 『전북사학』, 33, 2008; 김두헌, 「개항 이후(1876~1894년)의 잡과와 주학 입격자 신분」, 『대동사학』, 1, 2002; 김두헌, 『기술직 중인 신분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중인'의 사회적 유동성」,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한국근대이행기중인연구』, 신서원, 1999; 김현목, 「한말 역학생도의 신분과 기술직 중인의 동향」,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한국근대이행기중인연구』, 신서원, 1999 참조.

【그림 1】 전주 최씨 가계도



자료: 『全州崔氏十修世譜 1卷』, 全州崔氏十修世譜編纂委員會, 2003; 『全州崔氏十修世譜 2卷』, 全州崔氏十修世譜編纂委員會, 2003; 『雲科榜目』, 『醫科榜目』.

사대부에 비해 청요직으로의 진출에 제한을 받는 차별이 있었지만, 당당히 과거(잡과)에 급제한 계층으로서 그에 걸맞은 유교적 학식과 소양을 갖추어야 했고,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체득해야 했다. 지배층의 일원으로서 두터운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이들은 대체로 축적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생활을 누렸고, 드물지만 개

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는 고위직(당상관)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최호진의 5대조인 錫冕과 4대조인 悳淵의 자급이 각각 종1품인 崇政大夫와 崇祿大夫에 이르렀으며 관직이 知中樞府事에까지 오른 예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겠다.

기술직 중인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급제자가 특정 가문에 집중되어 관직 진출의 폐쇄성, 세습성에 안주하는 보수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양반사대부와의 차별에 불만을 품어 능력에 의한 인재 등용을 주장하며 중세의 신분제 질곡을 타파하려는 개혁적 성격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은 성리학적 교리와 이념에 고집하지 않고 실무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 습득을 중요시하는 현실적 감각을 지녔으며, 과거 급제를 위해 자녀 교육에도 열성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개항기에 들어서 외국의 과학기술과 근대문물을 적극 수용하여 부국강병에 나서자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는데,[13] 여기에는 이들이 수학한 학문인 의학, 천문학, 지리학 등이 전통 학문 가운데에서도 서양의 근대 학문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지닌 데에도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사실 개항은 '기술직 중인'에게는 기회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근대 관료기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관직 진출이 용이해지고, 능력에 따라서는 고위직으로의 진출도 쉬워졌다. 宗玉의 후손 가운데 崔榮夏는 외무부협판(대신서리)에 오르기도 했으며, 경옥의 후손 가운데에서 圭淵의 사위인 역관 玄昔運은 탁지부협판(대신서리)을 지내기도 하였다.[14] 개항기에 새로이 설치된 근대 관료기구라고 볼 수 있는 우체사, 전보사의 주사를 지낸 인물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최호진의 부친인 최규렴도 육군무관학교 주사를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육군무관학교는 대한제국에서 초급장교를 배출하기 위해 만든 근대군사교육기관이었다.[15]

일찍부터 자녀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최씨 가문에서는 개항기에 들어서 문명개화론을 앞세워 근대문물의 수용, 외국어 습득을 중시하여 신식교육을 받거나 외국유학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현재까지 족보나 인명록, 관보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관립외국어학교 출신이 2명이었고,

---

13) 宋萬午, 『韓國의 近代化에 있어서 中人層의 활동에 관한 硏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14) 『大韓帝國官僚史硏究(Ⅱ)』, 延世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1995, 942, 998쪽.
15) 林在讚, 『舊韓末 陸軍武官學校 硏究』, 第一文化社, 1992.

遇字 항렬에서만 일본 유학을 다녀온 인물이 6명에 달했다. 최호진의 형제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백형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누나는 일본으로 유학을 다녀왔다고 한다.

이런 가문의 특성은 최호진의 학문세계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나중에 자세히 살피겠지만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나 이론 보다는 실증연구를 강조하는 경향, 그리고 일본유학을 다녀오고 학문연마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는 이런 집안 내력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그의 집안 성향 가운데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투철한 배일의식이었다. 백형 최용진은 배재학당을 나와 일찍이 미국에 건너가 이승만의 영향 아래 독립운동을 한 인물이었다.[16] 이승만이 총재로 있던 同志會의 주요 멤버로 활약하기도 하였다.[17] 또한 중형 최봉진은 부호를 상대로 군자금 모집에 나섰던 일명 '韓建團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던 인물이었다.[18] 가까운 친척이었던 최근우는 2.8독립선언을 주도하였고 귀국 후에 사회운동에 참여하였으며 해방후에는 여운형과 정치노선을 같이한 거물이었다. 최호진은 이들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내면에 반제국주의, 반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집안의 영향 외에도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반제국주의, 반일의식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23년 4월 校洞普通學校에 입학하여 6년간의 수학과정을 마치고 1929년 3월 졸업(19회)했는데,[19] 재학시절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귀족의 자녀들이 인력거를 타고 하인을 대동하고 등교하던 모습이나 점심 때 하인들이 음식을 만들어 학교에 가져오는 광경을 보며 비판적 인식을 가졌다.[20] 교동보통학교 졸업 이후 그는 1929년 4월 京城第一高等普通學校(이하 제일고보)에 입학하였다. 제일고보는 대한제국에서 신식교육을 위해 야심차게 만든 관립중학교에서 출발한 한국에

16) 최병현, 『강변에 앉아 울었노라-뉴욕한인교회 70년사』, 깊은샘, 1992, 261쪽. 이런 인연으로 최용진은 해방 이후 남궁염 뉴욕 총영사 밑에서 부영사를 지냈다.
17) 홍선표, 「해방 이전 대한인동지회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2009, 445쪽.
18) 『朝鮮日報』, 1926.11.16, 11.18, 11.23; 『每日申報』, 1926.10.22, 10.23, 11.23; 『東亞日報』, 1926.10.20, 10.21, 10.22, 10.27, 11.9, 11.23.
19) 서울校洞國民學校百年史編纂委員會 編, 『校洞百年史』, 서울校洞國民學校同窓會, 1994, 607쪽.
20) 최호진, 앞의 책, 1991, 127-128쪽.

서 가장 오래된 중등교육기관이었는데, 역사가 오랜 만큼 이 학교는 "조선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 학교"라고 자타가 인정하였고, 높은 입학경쟁률과 상급학교 진학률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이 학교는 일제의 식민지교육정책에 따라 동화주의교육을 통해 식민지지배정책에 동조하거나 이를 직접 수행하는 지배엘리트계층을 양성할 목적의 식민지교육기관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학생은 전원 한국인이었지만 교장과 교사 대부분이 일본인이었고, 수업의 대부분은 일본어로 이루어졌으며 수신, 지리, 일본사, 일본어 과목을 집중 교육해 "강건한 일본정신을 진작"시켜 학생들을 "일본국민"으로 만들려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었다.[21]

이 학교에 입학한 한국인 학생들은 이러한 인재양성 시스템에 맞추어 경성제대, 경성법학전문, 경성의학전문, 경성고등상업, 경성고등공업 등 각종 관공립학교를 거쳐 식민지엘리트로 성장해 갔지만, 일부는 일제의 동화주의 교육정책에 대해 강한 저항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한국인을 무시하는 일본인 교사나 실력이 없는 교사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표출해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여기에는 민족의식과 함께 엘리트로서의 자부심도 작용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최호진이 이 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이러한 저항의식이 크게 고조된 때였다. 당시는 1929년 광주학생운동의 영향으로 전국 각급 학교에서 배일의식이 크게 고양되었고 서울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동맹휴학 열풍이 불었던 것이다.[22] 제일고보도 그 영향을 받아 1930년 초 이 학교 학생들이 광주학생운동의 진상을 알리는 가두시위를 기도한 적이 있었고 한때 59명이나 결석할 정도로 심한 동요를 보이고 있었다.[23] 이에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의 동요와 시위를 막는다는 구실 아래 무려 17명을 강제 퇴학시키는 폭압적인 조치를 취했다.[24] 그러나 최호진은 당시 1학년이었기 때문에 이

21) 제일고보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가 없는 한 『京畿九十年』, 京畿高等學校同窓會, 1990; 朴哲熙, 『植民地期 韓國 中等教育 硏究-1920~30年代 高等普通學校를 中心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김경미, 「식민지 교육 경험 세대의 기억」, 방기중 편, 『식민지 파시즘의 유산과 극복의 과제』, 혜안, 2006 참조.

22) 金性玟, 「1920년대 후반 서울지역 학생운동의 조직과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31, 2004; 金鎬逸, 「1930년대 항일학생운동의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1989.

23) 『東亞日報』, 1930.1.9.

24) 『東亞日報』, 1930.1.18. 그해 2월까지 제일고보와 제이고보 합쳐 32명이 퇴학당하고 80명이 정학 당할 정도였다. 『東亞日報』, 1930.2.1.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25]

그러나 3학년 때인 1931년 말 그 자신이 관련된 동맹휴학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본인 영어교사 吉崎文三郎의 차별적인 수업 태도와 실력 미달에 분개한 학생들이 그해 12월 14일 아침 시험을 앞두고 돌연 동맹휴학에 돌입하였던 것이다.[26] 3학년생 191명 전원이 교실 한 곳에 모여 안에서 문을 잠가 출입을 봉쇄하고 시위를 벌였는데, 이들은 이 학교 교장과 일본인 교사 2명의 배척, 노예교육 반대, 언론집회 자유, 수업료 인하 등을 주장하였다. 평소 일본인 영어교사에 대한 반감을 계기로 학교 운영정책 전반에 대한 개혁과 식민지교육정책의 재고, 한국인 본위의 교육 등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에 학교측은 매우 강경하게 대응했다. 강제로 문을 열어 학생들을 조사한 뒤 주모자 6명은 즉시 퇴학시키고 1명은 권고 퇴학시켰으며 6명은 당분간 출석정지의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은 즉각 반발했다. 학기말시험을 거부하고 퇴학생들의 복교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학교는 더욱 강경해져 추가로 5명을 퇴학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학생들의 학교운영정책 개선 요구에 대해 이처럼 초강경 조치를 취한 이유는, 광주학생운동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았던 차에 몇몇 학교에서 동맹휴학이 일어나자 이 학교의 동맹휴학이 외부로 크게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때문인 것 같다.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일부 학생들만 큰 피해를 입은 채 12월 17일부터 학생들이 시험에 응하면서 사태는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 후 학교는 한동안 잠잠했지만, 이듬해 2월 경찰에 의해 이 동맹휴학이 'RS협의회 사건'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언론에 발표되면서 다시 긴장이 조성되기 시작했다.[27]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무관학교를 졸업한 李平山이 상해에 망명한 공산주의자 韓偉鍵, 梁明 등의 지시를 받아 조선에 잠입하여 경성공립여자고보, 동덕여자고보, 보성전문, 경신학교, 중앙고보, 휘문

25) 당시 시위가 벌어질 때면 선배들이 1학년생은 어려서 위험할지도 모르니 교실에 남아 있으라고 만류했다고 한다. 『京畿九十年』, 京畿高等學校同窓會, 1990, 145쪽.

26) 『東亞日報』, 1931.12.16; 『每日申報』, 1931.12.15, 12.18; 『朝鮮日報』, 1931.12.15, 12.16; 최호진, 앞의 책, 1991, 40-42, 128-129쪽.

27) 『東亞日報』, 1932.2.15, 2.16, 2.18, 2.27; 『每日申報』, 1932.2.15, 2.16, 2.18, 2.26, 2.27; 『朝鮮日報』, 1932.1.14, 2.9; 『京畿九十年』, 京畿高等學校同窓會, 1990, 141-146쪽; 〈京城學生アールエス協議會事件檢擧ニ關スル件〉, 『民族解放運動史資料集 4』, 영진문화사, 1993, 383-454쪽; 김경일, 『한국 근대 노동사와 노동 운동』, 문학과지성사, 2004, 454-467쪽.

고보, 중동학교, 법정학교, 제일고보, 제이고보, 기독청년회학교 등 각급 학교에 좌경사상을 선전하고 동맹휴학을 주도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 'RS협의회 사건'은 공산주의자협의회, 공산당재건준비회, 공작위원회 사건 등과 엮어서 처리되어 대규모 공안사건으로 비화되어 있었다. 이른바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대대적으로 탄압했던 바로 그 사건이었다.

그런데 사실 RS는 '독서회(Reading Society)'의 약어로 학생들의 독서모임을 가리키는 용어였고, 일부 학교에서 이평산과 연관된 인물들이 독서회를 조직하여 동맹휴학을 주도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도, 제일고보의 동맹휴학이 이와 관련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언론발표 내용과 달리 실제 이 사건 관련 경찰문서에는 제일고보 관련 내용이 극히 소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제일고보의 독서회는 조직 시도만 있었고 실제로는 조직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28] 적어도 'RS협의회' 조직의 실체가 제일고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경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무려 37명을 3개월간이나 무단으로 구금해 심문하여 그 중에 1명을 사망케 할 정도로 폭압적으로 수사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는 30명을 불기소 혹은 기소중지하고 7명만을 기소할 정도로 비교적 온건하게 처리했다. 말하자면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분쇄하기 위해 중등학생들의 학내운동을 여기에 끼워 맞춰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던 것 같다.

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알려지면서 학생들은 다시 동요했다. 3월 1일 제일고보와 제이고보에서 동맹휴학을 단행한 일은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29] 그러나 경찰은 이 역시 엄청난 강도로 탄압했다. 제일고보에서 13명, 제이고보에서 16명을 검거하였으며, 이 가운데 제일고보 3명, 제이고보 4명 등 7명을 검사국에 송치했다가 최종적으로 3명을 기소하였다.

1931년 말부터 1932년 초까지에 걸쳐 일어난 이 동맹휴학 사건은 제일고보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지만, 최호진 개인에게도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겼던 것 같다. 동맹휴학 전개과정에서 그가 어떠한 역할을 맡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로 인해서 그의 학문인생에서 진로가 바뀌는 뜻하지 않은 계기

28) 〈京城學生アールエス協議會事件檢擧ニ關スル件〉, 『民族解放運動史資料集 4』, 영진문화사, 1993, 424쪽 ; 김경일, 앞의 책, 465-466쪽.
29) 『朝鮮日報』, 1932.3.2, 3.4; 『每日申報』, 1932.3.2, 3.3, 3.5, 3.17, 3.25; 『東亞日報』, 1932.3.2, 4.8. 7.17.

를 만든 것 같다.

그는 1934년 3월 5년제인 제일고보를 졸업하고 곧바로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1년을 쉰 뒤에야 1935년 4월 보성전문 법과에 입학하였다. 그런데 이는 당시 일반적인 제일고보 졸업생의 진로와는 크게 달랐다. '조선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학교'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 학교 졸업생의 대부분은 상급학교 진학을 계획하고 취직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는데, 특히 문과쪽의 성적 우수자들은 대개 법학 전공을 희망해 관립인 경성제대 예과(본과는 법문학부)나 경성법학전문에 진학하는 편이 많았다.[30] 고등문관시험 합격을 통해 고위관료나 법조인으로 진출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제일고보를 졸업하고 법학 전공을 희망하면서도 관립인 경성제대나 경성법전에 가지 않고 1년을 기다렸다가 한국인 사립학교인 보성전문 법과에 진학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회고록에서 언급한 다음 대목에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 내가 京城第一高等普通學校(현 京畿中學)에 입학한 때는 제1차세계대전 후 세계공황이 발발하기 시작한 해다. …… 그리하여 1929년 후 수년간 계속하여 전조선각지에서 일어난 소위 학원에서의 동맹휴학은 …… 매일 같이 들리는 소리가 어느 高普, 어느 女高, 어느 專門學校에서 「朝鮮歷史」를 교수하라, 「朝鮮語」 시간을 증가하라, 일본인 교사를 逐放하라, 일본인 교장을 배척한다 등 거의 모두가 일본제국주의교육정책을 비방, 배척 그리고 그것에 반항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3學年時 바로 나의 크라스에서 발단이 되어 전교가 동맹휴학에 들어갔으며, 무수한 학생들이 검거당하였던 것이다. 그로 인하여 한때는 「修身」(현금의 「道義」과목)과 「操行」(현금의 「人物槪評」)의 평점을 無로 판정하는 때도 있었다. 이렇게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상급학교 진학시의 內申書이다. 그 당시는 조선인과 일본인 共學인 소위 관공립전문학교 등은 조선인에 한해서는 내신서에 의하여 본인 및 가정의 사상(물론 배일·반일사상)을 점치고, 그 다음 시험성적을 고려하는 것이 통례이었다. 이와 같기 때문에 아무리 우수한 두뇌의 소유자라도 不穩思想所有者라는 낙인이 찍힌 학생은 이 땅에서 공부하기 매우 어려웠던 것이

30) 일례로 1934년 경성제대 예과 입학 한국인 학생 52명 가운데 15명, 법학전문 60명 가운데 11명이 이 학교 출신이었다. 『京畿九十年』, 京畿高等學校同窓會, 1990, 160쪽; 『東亞日報』, 1934.3.27.

다. 그리하여 국내에 있는 사립 조선인학교나 그렇지 않으면 비교적 그런 것에 등한한 일본 내의 각급 학교에, 무리를 하여 가면서 진학하는 것이 통례이었다. 이와 같은 환경 주위에서 공부를 하였다는 것을 이제 회상하면 참으로 꿈과도 같다. 말하자면 조선에 있어서의 일본제국주의 발전의 절정기에서 학도들은 신음하면서 畸形的인 硏學을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31]

이에 의하면, 동맹휴학과 관련된 학생들은 수신과 조행 점수가 좋지 않아 사실상 '불온사상 소유자'로 낙인찍혀 상급학교 진학에 큰 불이익을 받았다고 술회하고 있는데,[32] 그의 진학과정을 비춰 보면 바로 본인의 이야기를 에둘러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가 전공을 법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원래 보통학교 시절부터 미술에 큰 흥미를 가져 고보시절에도 줄곧 그림을 즐겨 그렸고 한때는 동경미술학교 진학을 희망해 집안에 상의한 일까지 있었다.[33] 그러나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일생을 지내겠느냐"는 강한 반대에 부딪혀 뜻을 접어야 했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그의 법과 진학은 집안의 뜻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한국인 사립학교 중에 왜 보성전문을 택했을까. 당시 연희전문에는 법과가 별도로 없었고 상과 내에서 일부 필요과목만을 가르쳤을 뿐이며, 보성전문은 법과를 별도로 설치해 가르치고 있었다.[34] 게다가 보성전문은 그의 집안과도 긴한 관계를 가졌던 것 같다. 그의 백형 최용진은 미국에서 보성전문학교 창립30주년기념사업 후원회의 발기인과 임원(선전부위원)으로 활약하기도 하였다.[35] 이런 인연 때문에 보성전문 법과를 선택했을 것이다.

---

31) 崔虎鎭, 「나의 學窓時節」, 『財政』, 250, 1957.7, 156-157쪽.
32) 操行은 인물의 됨됨이를 사정하는 평가방법이었다. 조행이 不이면 학업성적과 관계없이 졸업을 인정하지 않았고, 조행성적은 포상이나 상급학교 진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朴哲熙, 앞의 글, 123-125쪽.
33) 최호진, 앞의 책, 1991, 206-208, 267-270, 375-379쪽. 그가 제일고보 재학 중에 그린 "四花"라는 제목의 그림이 동아일보사 주최 제3회 전조선남녀학생작품전에 입선하기도 했다. 『東亞日報』, 1932.9.21. 그는 제일고보 1,2학년까지만 그림을 그렸다고 회고했지만, 1932년에 입선한 사실로 보아 적어도 4학년 때까지는 미술에 뜻을 두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34) 1935년 보성전문 상과는 정원 100명에 220명이 지원하는 데에 그쳤지만, 법과는 정원 100명에 327명이나 지원했다. 『朝鮮敎育新聞』, 149, 1935.2, 14쪽.
35) 『東亞日報』, 1933.10.22, 11.6.

2. 보성전문 법과와 경제사 연구의 모색

'기형적인 硏學의 길' 끝에 들어간[36] 보성전문에서 그는 우연치 않게 그의 학문세계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교수진을 만났다. 보성전문은 1905년 이용익에 의해 창립된 이래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학교로서의 위상을 떨쳤지만, 1910년대와 1920년대를 거치며 재정난과 재단 내부의 분쟁으로 난맥을 거듭하다가 일시 전문학교에서 법률상업학교로 격하되는 수모까지 겪었는데, 1932년 고부 김씨가에 의해 인수되면서 중흥의 시기를 맞고 있었다.[37] 새로운 교장 김성수의 주도로 안암동에 교사와 도서관을 짓고 젊고 유능한 교수진을 대거 확충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 때 법과에는 경성제대 조수 출신의 兪鎭午와 崔容達, 그리고 상과에는 동경상대 출신의 金洸鎭, 경도제대 출신의 朴克采와 尹行重 등이 임용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사회주의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인물들이었다.[38] 일찍부터 반제국주의 정서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던 최호진이 이들의 강의를 들으며 사회주의를 민족해방을 전망할 이론적 대안의 하나로 검토한 것은 당시의 지적 흐름으로 보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특히 유진오(1906~1987)는 제일고보를 나와 경성제대 예과와 법문학부를 수석 졸업하고 그 학교에서 조수를 지낸 당대 손꼽히는 수재였다. 유진오는 경성제대에서 교수 임용이 난망하게 되자 김성수의 권유를 받아 보성전문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때 자신과 절친했던 김광진, 최용달도 보성전문으로 오도록 권유했던 것 같다. 유진오는 부임 이후 매우 의욕적으로 연구와 강의에 임했다. 당시로는 획기적이었던, 보성전문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학술잡지 『普專學會論集』의 간행에 앞장섰으며, 소수의 최우수 학생들을 상대로 '대학 수준'의 강의를 해보겠다며 '영법강독' 과목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최호진은 이 강의의 가장 열렬한 수강생이었으며 유진오가 가

36) 『東亞日報』, 1935.4.3; 『每日申報』, 1935.4.3.

37) 柳光烈, 「普專論」, 『東方評論』, 1932.5, 2-8쪽; 고려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100년사 I』, 고려대학교출판부, 2008.

38) 다만 유진오는 경성제대 재학시절 경제연구회를 조직하여 최용달, 박문규, 이강국 등과 함께 사회주의를 집중 연구해 왔지만, 1930년대 중반 이후 김성수의 영향을 받아 점차 민족주의로 사상적 변화를 겪고 있었다. 이영록, 『유진오 헌법사상의 형성과 전개』, 한국학술정보(주), 2006; 이수일, 「유진오와 최용달」, 『남과 북을 만든 라이벌』, 역사비평사, 2008; 이수일, 앞의 글, 2013; 홍종욱, 앞의 글; 이상호, 앞의 글 참조.

장 먼저 거론하는 제자의 한 사람이었다.[39] 이외에도 최호진은 유진오로부터 헌법, 행정법, 국제공법 등을 수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 최호진의 보성전문 수학시절 수강 과목

구분		1학년(1935년)		2학년(1936년)		3학년(1937년)		교수진(예상)
		과목명	시수	과목명	시수	과목명	시수	
필수	기초	수신	1	수신	1	수신	1	안호상(전)
		국어(일본어)	2					
		한국어/한문	2	한국어/한문	1			박승빈(강)
		영어	4	영어	4	영어	4	백상규(교)/최정우(전) /김해균(전)/외국인
	법학	법학통론	1					최태영(교)
	헌법	헌법	3					유진오(교)
	행정법			행정법총론	2	행정법각론	2	유진오(교)
	민법	민법총칙	3	물권제2부	2	채권각론	1	옥선진(교)/최태영(교) /최용달(교)/진승록(전)
		물권제1부	2	채권각론	2	상속법	2	
		채권총론	3	친족법	2			
	상법			상법총칙 /상행위	4	회사법	3	최태영(교)/최용달(교) /野村調太郎(강) /丸山敬次郎(강)
				보험		수형법	2	
				해상법	2			
	형법	형법총론	3	형법각론	3			渡邊勝美(교)
	국제법					국제공법	3	유진오(교)
						국제사법	2	渡邊勝美(교)/천철(강)
	소송법 /실무			민사소송법	4	민사소송법	3	渡邊隆治(강)/이상기(강) /增村文雄(강)/藤村英(강)
						형사소송법	3	渡邊勝美(교)
						파산법	2	荒巻昌之(강)
				실무	2	실무	2	이승우(강)/김용무(강) /김병로(강)
	기타	경제학	3	재정학	2			홍성하(교)/박극채(전) /윤행중(전)
		철학개론	2					안호상(전)
		논리학	2					안호상(전)
		심리학	2					
		체조	1	체조	1	체조	1	이병학(강)
선택		중국어	2	중국어	2			김권제(강)
				영법강독	2	영법강독	2	유진오(교)
						법제사	2	진승록(교)

자료: 『法科成績表』, 普成專門學校, 1935~1937; 『普成專門學校一覽』, 普成專門學校, 각년도판.

비고: 교수진은 실제 담당 교수를 알 수 없어서 당해년도 해당 과목의 담당 교수를 모두 기재함. 교=교수, 전=전임강사, 강=강사.

39) 兪鎭午, 「나의 硏究室 時節(10)」, 『새法政』, 1973.7, 66쪽; 兪鎭午, 『養虎記』, 高麗大學校出版部, 1977, 56쪽. 유진오의 최호진에 대한 신임은 해방후 보성전문의 재건을 위해서 두 사람이 여러 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는 회고에서도 잘 드러난다. 兪鎭午, 위의 책, 161쪽. 뒷날의 일이지만 최호진은 유진오의 친척(16촌)인 兪仁熙 여사와 결혼해 인척관계가 된다. 『杞溪兪氏族譜 第4卷』, 杞溪兪氏大同譜編纂委員會, 1991, 15-19, 264-267, 345-346쪽.

그는 이 시기 경제학 과목도 적지 않게 수강했다. 우선 법과에서는 필수과목으로 경제학과 재정학이 개설되어 있었다. 당시 교수진의 담당교과목을 보면 홍성하, 박극채, 윤행중 등이 이 과목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들었을 것이다.[40] 이외에도 상과에 개설된 경제학 관련 과목도 수강했던 것 같다. 당시 이수단위를 넘어선 청강은 흔히 있는 일이었고[41] 그 자신도 일본 유학시절 이수단위를 초과해 많은 강의를 추가로 들었기 때문이다.

상과 교수진 중에서는 김광진에게서 큰 영향을 받은 것 같다.[42] 김광진(1902~1981)은 평안도 출신으로 동경상대를 졸업한 뒤 귀국하여 경성제대 조수를 지냈으며 이 때 유진오, 최용달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43] 이런 인연으로 이들과 함께 보성전문으로 자리를 옮겨 상과 교수가 되었다. 김광진은 늘 웃는 얼굴과 친절한 태도를 갖춘 '好紳士'였으며, 학생들의 질문을 잘 받아주고 인간적으로 지도하여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밤새도록 공부하는 학구열과 다방면에 두터운 학식을 자랑하였는데 특히 경제

---

40) 아마도 윤행중일 가능성이 높다. 최호진은 일본에 유학을 간 기간에 국내에서 발표된 윤행중의 케인스경제학 연구 동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近代朝鮮經濟史』 출간 때는 윤행중으로부터 축하편지를 받기도 했다. 윤행중은 이 책의 서평을 썼는데, 특별히 "저자의 진리탐구에 挺身한 열정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는 격려의 말을 남겼다. 여러모로 보아 둘은 각별한 관계였던 것 같다. 최호진, 앞의 책, 1991, 428쪽; 尹行重, 「崔虎鎭著『近代朝鮮經濟史』」, 『每日新報』, 1943.1.10. 해방이후 윤행중은 백남운과 사상적, 정치적으로 동일한 입장에서 행동한 측근이었다. 방기중, 앞의 책.

41) 예를 들어 경성제대 법문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던 유진오는 철학에 흥미를 느껴 다수의 철학 관련 강의를 청강하기도 했다. 최용달도 졸업에 필요한 단위 이상으로 청강했다. 兪鎭午, 『젊음이 깃 칠 때』, 徽文出版社, 1978, 87, 94쪽.

42) 김광진에 대해서는 이하 별다른 주가 없는 한 G記者, 「教授講義打令-商科教授 金洸鎭氏」, 『朝鮮日報』, 1933.5.11; 임영태, 「북으로 간 맑스주의 역사학자와 사회경제학자들」, 『역사비평』, 6, 1989, 303-306쪽; 이공순, 「김광진-식민지 반봉건의 기치를 들다」, 『발굴 한국현대사인물 3』, 한겨레신문사, 1992, 93-98쪽 참조. 1939년 보성전문을 사직하고 고향인 평양으로 간 김광진은 그곳에서 해방을 맞았는데 그 후 북한에서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북한사회과학원 원장을 지냈다. 1960년대 중반 판문점에서 남한의 기자를 만난 김광진은 "최호진 교수는 내가 직접 가르친 사람이며 유진오 박사와 이인기 교수와는 친한 사이이니 안부를 전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東亞日報』, 1965.5.11.

43) 유진오는 "김광진군은 동경상대 출신이었지만 나이나 생활태도나 사상 경향이 우리들과 비슷해서 죽이 잘 맞았다"고 회고했다. 兪鎭午, 앞의 책, 1978, 111쪽. 유진오에 따르면 당시 경성제대 조수를 지내던 유진오, 김광진, 최용달, 박문규, 이강국 등은 조선사회운동의 이론적, 실증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조선사회사정연구소를 조직하고 함께 사회운동사를 집필하기도 했다. 兪鎭午, 앞의 책, 1978, 책, 114-117쪽; 『東亞日報』, 1931.9.15.

사에 조예가 깊었다. 상과에서는 주로 상업학과 경제사를 맡아 가르쳤다.

그런데 김광진은 동경상대 선배로서 당시 경제사연구의 巨擘이던 연희전문의 백남운과도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44] 백남운의 『朝鮮社會經濟史』가 출간될 때 김광진은 서평을 통해 "맑스주의의 입장에서 조선사회의 발전법칙을 과학적으로 규정"한 책으로 높이 평가하고 "종래의 조선사에 일대청산을 필"하였다는 극찬을 보낼 정도였다.[45] 김광진도 백남운의 영향을 받아 사적유물론에 입각한 한국사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현재를 變改하고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 대한 합법칙성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46] 사적유물론에 기반한 한국사 연구의 최종 목적을 민족해방을 전망하는 실천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셈인데, 이처럼 실천을 위한 한국사연구를 강조하면서도 "역사를 실천에 편리하도록 제조하거나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여 사료에 기반한 실증적 연구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각 아래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에 대해서는 풍부한 자료를 활용한 신중한 연구태도를 높이 평가했지만, 이청원의 『朝鮮社會史讀本』에 대해서는 원사료를 직접 취급하지 않은 "단시일에 된 급조품"이라고 폄하하였다.

그러나 김광진이 백남운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그와 학문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백남운의 영향 아래 사적유물론에 기반한 한국사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의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둘은 인식을 달리하였다. 사실 당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은 경제사학자들에게는 주요한 화두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에 관한 마르크스의 유고(『자본주의적 생산에 선행하는 제형태』)가 발견되기

---

44) 박병엽 구술, 『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 선인, 2010, 246쪽. 김광진은 동경상대 예과(1922~1925)와 본과(1925~1928), 백남운은 같은 학교 예과(1919~1922)와 본과(1922~1925)를 거쳐 둘은 3년차를 둔 선후배지간이다. 당시 동경상대에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星友會를 조직하여 친목을 도모했다고 한다. 『東京商科大學一覽』, 東京商科大學, 각년도판; 具鎔書, 「交友錄」, 『每日經濟新聞』, 1970.5.30; 具鎔書, 『財界回顧 9』, 한국일보社出版局, 1981, 23쪽. 백남운이 조선경제학회를 조직하여 대표간사를 맡을 때 김광진은 서무간사로 일했다. 『東亞日報』, 1935.1.1. 백남운에 대해서는 방기중, 앞의 책 참조.

45) 金洸鎭, 「白南雲敎授의 新著 『朝鮮社會經濟史』」, 『東亞日報』, 1933.9.21.

46) 이하 별다른 주가 없는 한 金洸鎭, 「科學의 黨派性=歷史性」, 『靑年朝鮮』, 창간호, 1934.10, 2-7쪽; 金洸鎭, 「朝鮮歷史學 硏究의 前進을 爲하여」, 『朝鮮日報』, 1937.1.3 참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에 학자들 간에 적지 않은 견해차를 보이고 있었다.[47]

우선 이를 독자적인 사회구성체로 인식하는 입장(마쟈르, 비트포겔)이 있었다. 이 견해 가운데에서 극단적인 견해는 중국이 원시공동체가 붕괴하고 제국주의에 의해 침입을 받을 때까지 아시아적 생산양식 하에 놓여 있다고 보기도 했다. 봉건제 결여론에 극심한 정체론이었다. 둘째는 '아시아적'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여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사회발전단계의 변종으로 보는 입장이었다. 크게 보아 봉건제사회의 변종으로 보는 견해(미프, 고데스)를 취하거나 노예제와 봉건제의 변종으로 보는 견해(코발레프)를 취하였다. 앞의 견해는 대체로 노예제 결여를 전제로 하였으며, 둘 모두 정체적 성격을 기본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도 역시 이와 비슷한 구도로 전개되었는데, 다만 일본에서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일본은 이를 극복했으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극복하지 못한 단계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리는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론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농후하게 띠고 있었다.[48]

당시 한국의 경제사학자들이 이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에 주목한 이유는, 이 이론이 단순한 경제사이론이 아니라 실천적 운동노선, 운동전략 수립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광진의 말을 빌려 말하면, "현재를 변개하고 미래를 건설"할 동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이 이론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적지 않은 견해차를 노정하였다.[49]

---

47) 이하 별다른 주가 없는 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에 대해서는 盧東奎, 「亞細亞的 生産樣式에 對하야」, 『新東亞』, 4-7, 1934.7, 100-107쪽; 李昇輝, 「1930年代 日本에서의 아시아的 生産樣式論爭」, 『서울대 東洋史學會論集』, 12, 1988; 최재현, 「맑스주의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역사비평』, 10, 1990; 洪淳權, 「1930년대 한국의 맑스주의 역사학과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 『東亞論叢』, 31, 1994; 朴炯振, 「1930년대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과 과학적 조선학 연구-이청원의 식민지기 학술활동과 논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2; 방기중, 앞의 책, 1992, 129-184쪽; 방기중, 「내재적 발전론의 전진을 위한 방법론적 고찰」, 『조선후기 경제사론』, 연세대학교출판부, 2010 참조.

48) 姜晋哲, 「日帝官學者가 본 韓國史의 停滯性과 그 理論」, 『韓國社會의 歷史像』, 一志社, 1992; 盧鏞弼, 「森谷克己의 植民主義 社會經濟史學 批判」, 『韓國史學史學報』, 22, 2010.

49) 지나치게 운동노선에 편향된 시각으로 보면,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의 적용은 정치적

그런데 김광진은 일찍부터 이 이론의 적용에 큰 관심을 두어 '조선말기 화폐제도의 역사'를 다룬 논문에서 이 이론에 입각하여 조선후기를 분석하고 있었다.[50] 그는 "이조사회의 경제적 기구는 19세기 말엽까지 소위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놓여 있었으며 "不易性으로써 반복되는 생산형태인 농업과 가내수공업의 직접적 결합"이 온전해 있다고 보았다. 상업, 화폐 모두 미발달한 상태에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봉건제 결여론에 극심한 정체론이었다. 타율성론, 정체성론으로 무장한 식민사학에 맞서 보편적인 세계사적 역사발전법칙의 관철을 중시한 백남운으로서는 이런 견해를 묵과할 수 없었다. 그는 김광진의 논문에 대해서 조선말기의 화폐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好編"으로서 "경제학계의 일대 수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극심한 정체론적 인식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하였다.[51] 상업자본이 발생하지 못한 조선사회가 이양선의 침입으로 돌연히 붕괴되었다는 견해는 중국에 침입한 서구 자본주의가 아시아적 생산양식과 봉착했다는 견해와 동일한 견해이므로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후 김광진은 고대사로 관심을 돌려 고구려에 관한 논문(미완성)을 저술했는데, 여기에서는 고구려에 가내노예 내지 사치노예가 존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노동노예의 존재는 부인하여 노예제가 사회경제적 구성의 물질적 기초를 구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52] 이러한 논리는 결국 노예제의 결여와 봉건제의 장기간 존속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백남운으로서는 이 견해도 수긍할 수 없었다. 그는 김광진의 논문에 대해 "잘 生長한 선진적 노예사회인 고구려의 역사발전계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53]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둘러싼 백남운과 김광진의 논쟁은 최호진의 학문세계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보성전문 졸업후 고등문관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일본유학을 선택했으며, 후술하겠지만 구주제대 유학 때에는 법학과가 아닌 경제학과로 진로를 변경하여 경제사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의 경제사 연구는 사적유물론에 기초하면서 아

상황 판단에 큰 영향을 받게 마련이었다. 이청원이 이 이론의 적용을 두고 시기별로 적지 않은 변화를 보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朴炯振, 앞의 글.

50) 金洸鎭, 「李朝末期における朝鮮の貨幣問題」, 『普專學會論集』, 1, 1934.
51) 白南雲, 「普專學會論集에 對한 讀後感(完)」, 『東亞日報』, 1934.5.4.
52) 金洸鎭, 「高句麗の生産樣式」, 『普專學會論集』, 3, 1937.
53) 백남운/하일식 역, 『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 1』, 이론과실천, 1993, 14쪽.

시아적 생산양식론에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재학 시절 백남운과 김광진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경제사 연구에 뜻을 굳히고 나름의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그의 한국경제사 연구의 기초는 보성전문 법과에서 시작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54]

3. 일본 유학과 『近代朝鮮經濟史』 저술

최호진은 1938년 3월 3년 과정의 보성전문 법과를 우등으로 졸업하고,[55] 그해 4월 九州제대 법문학부 경제학과에 입학하였다.[56] 입학과정은 험난했다. 일본 내 고등학교 출신들은 곧바로 제국대학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전문학교 졸업자는 "방계 출신"이라 하여 자격시험(영어, 일본어, 일본사, 서양사, 철학개론, 경제학개론, 한문 등)을 합격해야 비로소 고등학교 출신과 함께 경쟁선발시험(영어, 일본어, 일본사)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57] 두 개의 좁은 관문을 통과한 소수만이 여기에 선발될 수 있었던 것이다.[58]

九州제국대학(이하 九州제대)은 1903년에 설치된 京都제국대학 제2의과대학(福岡의과대학)과 신설된 공과대학을 합쳐 1910년에 설립한 대학이었다.[59] 그 뒤 1919년에는 농학부, 1924년에는 법문학부, 1939년에는 이

---

54) 이와 관련해 최호진은 1946년 8월에 쓴 글에서 "경제학의 연구에 뜻을 둔 지 9년을 지나 이제야 겨우 10년을 바라본다"고 회고했는데, 역산하면 그 시기는 1936년 말이나 1937년 초가 된다. 崔虎鎭, 『一般經濟史』, 理想書院, 1946, 2쪽.

55) 『東亞日報』, 1938.3.23; 『每日申報』, 1938.3.20.

56) 그의 유학시절은 이하 별다른 주가 없는 한 高仁淑, 「日本の大學に入學したアジア人留學生の追跡調査研究-九州帝國大學への朝鮮人留學生を中心に」, 『大學院教育學研究紀要』, 5, 2002; 石川捷治 編, 『朝鮮半島から九州大學に學ぶ』, 九州大學韓國研究センター, 2002; 최호진, 앞의 책, 1991, 129-131, 244-250, 419-430쪽 참조.

57) 金鍾大, 『靜觀自得』, 圖書出版 創造, 1990, 413-441쪽; 金鍾大, 「나의 留學時節 (1)~(15)」, 『每日經濟新聞』, 1983.1.1.~1.19. 경성고상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김종대는 東京상대와 九州제대 모두 불합격하고 1년간 재수하며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야 겨우 九州제대 법문학부에 합격할 수 있었다.

58) 1938년 九州제대에 입학한 한국인은 통틀어 법문학부 4명, 농학부 1명에 불과했다. 1945년까지 한국인으로서 九州제대 법문학부를 졸업한 인원은 모두 97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경제학과 졸업생은 10명에 불과했다. 『九州大學五十年史 通史』, 九州大學創立五十周紀念會, 1967, 409쪽.

59) 九州제대의 학풍과 교수진에 대해서는 이하 별다른 주가 없는 한 多多良三平, 『九州帝大人物風景』, 國際書院, 1931, 200-209쪽; 『九州帝國大學要覽』, 九州帝國大學, 1936; 『九州大學五十年史 通史』, 九州大學創立五十周紀念會, 1967; 『九州大學五

학부를 증설했는데, 원래는 법학부, 문학부, 경제학부를 별도로 설치하려 했지만 예산부족으로 법문계통의 총합학부로서 법문학부를 설치하고 학부 내에 법학과, 문학과, 경제학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었다. 1925년에 첫 입학생을 받은 이 학교 경제학과는 당시 학계 전반의 분위기가 마르크스경제학에 치우쳐 있던 영향도 있었지만, 창설 이래 石濱知行, 向坂逸郎, 高橋正雄 같은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이 재직하면서 이들의 영향으로 자연히 마르크스주의의 학풍이 거셌다.

그러나 최호진이 입학할 당시에는 이 학교의 이러한 학풍이 크게 변화를 맞고 있었다. 1928년 3·15사건에 연루되어 石濱知行, 向坂逸郎이 퇴임하였고, "마르크스 경제학을 이해하지 않으면 경제를 이해할 수 없다"[60]고 했던 高橋正雄마저 인민전선사건에 관련되어 1939년에 면직되었던 것이다.[61] 일본제국주의는 파시즘체제를 강화하면서 엄청난 강도의 사상탄압, 학원탄압을 자행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1938년 연희전문에서 경제연구회사건을 일으켜 이 학교 이순탁, 백남운, 노동규 교수 등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을 구속하였던 일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62]

九州제대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의 퇴임과 함께 신고전학파나 케인스경제학 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세를 확장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高田保馬(1883~1972)가 주도하였다. 高田은 원래 사회학에서 출발하여 경제학을 연구한 인물로 한때 동경상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건강을 잃어 고향에 은거하였으며 1925년에 九州제대에 부임하여 경제학개론을 담임하는 교수가 되었다. 수업은 주로 한계효용학파부터 케인스학파에 이르는 경제학설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京都제대로 자리를 옮겼지만 한동안 九州제대 교수를 겸임하였고 지속적으로 강의를 맡으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高田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十年史 學術史 下卷』, 九州大學創立五十周紀念會, 1967; 石川捷治 編, 『朝鮮半島から九州大學に學ぶ』, 九州大學韓國研究センター, 2002 참조.

60) 『九州大學五十年史 學術史 下卷』, 九州大學創立五十周紀念會, 1967, 483쪽.

61) 1936년부터 1939년까지 독일에서 유학 중이던 高橋正雄은 1938년에 일어난 인민전선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아 귀국하자마자 구속되고 교수직을 상실하였다.

62) 홍성찬, 앞의 글, 2005. 이러한 사상탄압에도 불구하고 최호진은 당시 일본의 제국대학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고 회고하였다. 九州제대 시절 軍事講話 시간에 다수의 학생들이 불참하고서도 무사했으며, 전시말 한국에서는 경성제대 교수들도 머리를 깎고 전투모에 전투복을 입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石川捷治 編, 앞의 책, 44쪽; 최호진, 앞의 책, 1991, 430쪽.

"재패니즈 마샬"로 불릴 정도였다.[63] 제자 栗村雄吉이 그의 뒤를 이어 교수에 올랐는데, 栗村은 수요함수를 분석하고 왈라스, 파레토 등을 연구하는 학자였다. 수업 때는 주로 멩거(Carl Menger)를 중심으로 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을 가르쳤다. 이외에도 米原七之助는 부임하자마자 케인스(J. M. Keynes)의 일반이론을 원서로 강의할 정도로 케인스경제학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였다.

그러나 경제학과 내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도 여전히 강고하였다. 불굴의 마르크스주의자로 유명한 京都제대 河上肇의 제자인 森耕二郎이 九州제대 교수로 부임해 "사회정책이란 노동자계급이 노동력 상품을 가치대로 팔려고 하는 투쟁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양보 타협"이라는 시각 아래 가르치고 있었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세 교수들에게 수학한 제자들이 차차 교수에 임용되었는데, 마르크스주의 금속화폐설의 입장에서 화폐론을 가르치던 九州제대 출신 岡橋保가 대표적이었다. 타 대학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도 출장강의를 통해 이 학교에서 가르쳤다.

【표 2】 최호진의 九州제대 유학시절 수강과목

1학기		2학기		3학기		이후	
강좌명	담당교수	강좌명	담당교수	강좌명	담당교수	강좌명	담당교수
경제학개론 제1부	栗村雄吉	경제학개론 제2부	高田保馬	공업정책	森耕二郎	사회정책	森耕二郎
경제학사	波多野鼎	통계학	蜷川虎三	사회정책	森耕二郎	사회사상사	加田哲二
재정학 제1부	三田村一郎	화폐론	岡橋保	식민정책	長田三郎	통계학	蜷川虎三
원서강독 (영어경제)	米原七之助	농업정책	田中定			세미나수업	波多野鼎
정치학원론 (선택)		서양경제사	遠藤正男			희랍어 라틴어 불어	
		독어경제					

자료: 최호진, 앞의 책, 1991, 244-250쪽; 『九州大學五十年史 學術史 下卷』, 九州大學創立五十周紀念會, 1967.

63) 申泰煥, 「한국경제학 50년의 회고」, 『한국경제학의 제문제』, 전예원, 1983, 17쪽. 高田은 고등문관시험의 경제학위원이었기 때문에 그의 책은 필독서였으며 이 시험 응시자들은 필히 그의 강의를 들어 강의실이 초만원이었다고 한다. 金鍾大, 「나의 留學時節(7)」, 『每日經濟新聞』, 1983.1.10. 최호진은 고시 준비생들은 高田의 강의를 좋아했지만 일반 학생들로부터는 인기가 없었다고 회고하였다.

말하자면 당시 九州제대는 마르크스경제학부터 고전학파, 한계효용학파, 신고전학파, 케인스경제학까지 당대 세계학계의 유력한 경제학설과 이론들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던 셈이다.

최호진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학파들의 경제이론을 흡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九州제대 시절 수강했던 전체 과목 리스트를 입수하지는 못했지만, 회고록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수강 과목과 담당 교수들을 정리한 표 2를 보면 이러한 사정이 잘 드러난다. 우선 高田保馬와 栗村雄吉로부터 경제학개론을 들었으며, 米原七之助로부터는 케인스경제학을 배웠다. 河上肇의 제자 森耕二郎에게서 사회정책을 수강했으며, 마르크스주의자였던 慶應義塾대학 교수 加田哲二에게서 사회사상사를 수강하였고, 역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였던 京都제대 교수 蜷川虎三으로부터 통계학을 배웠다.[64]

그런데 그 가운데 최호진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학자는 波多野鼎이었다. 그는 첫 학기에 波多野 교수가 가르친 경제학사를 듣고서 곧 그의 지도를 희망하였다고 한다.

> 장차 명성이 높은 波多野 교수에게 사사할 것을 결심하고 수차 개별적으로, 때로는 자택이나 연구실로 방문하여 앞으로의 경제학 전공을 위한 지도와 교시를 간절히 구하였다. 다행히도 공사다망한 생활, 특히 집필에 열중하고 있으면서도 교수는 친절하게 나의 지도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여 주었다. …… 교수의 말대로 『국부론』과 『자본론』의 독파에 정열을 쏟았다. 교수의 말이 "십수년에 걸쳐 저작된 문헌을 몇 번 읽은 것으로 이해한다느니 평을 한다느니 하는 것은 학문을 모독하는 것이니, 몇 번이고 읽어 보다가 이해 안되는 곳은 그대로 넘어가도 좋다. 몇 번 되풀이하는 중에 이해가 갈 것이다, 그래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문의하라"고 하는 것이었다.[65]

波多野鼎(1896~1976)은 동경제대 재학시절 吉野作造의 문하였으며 진보적 학생운동 단체인 新人會의 멤버로 활약해 사회주의에 조예가 깊었다.

---

64) 蜷川교수는 패전 후 정치가로 변신하여 일본 사회당 공인, 민통 추천으로 경도부 지사 선거에 입후보하여 28년간 지사를 지내기도 했다.

65) 최호진, 앞의 책, 1991, 247쪽.

한때 同志社대학 교수를 지냈으나 퇴직 후 九州제대로 옮겼으며 그가 쓴 『社會思想史槪說』은 당대의 베스트셀러였고, 『價値學說史』는 일본에서 경제학설사의 고전적 문헌으로 손꼽히고 있다.[66] 시사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논객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계몽적 저서의 집필에도 솜씨를 보였다. 강의를 잘해 학생들로부터도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67] 매우 온화한 인물로 인격자였다. 인용문을 보면, 波多野 교수는 최호진에게 경제학의 고전인 『국부론』과 『자본론』을 정독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한다. 좌우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잡힌 시각에서 경제학 연구를 하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또한 波多野는 단순히 경제이론의 연구에만 몰두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현실과 이론 모두를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었고, 기존의 경제학사 연구에서 벗어나 점차 은행론이나 금융론 같은 현실에 한발 다가간 강의와 연구까지 맡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태도는 최호진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

결국 최호진으로서는 당시 九州제대 내에서 비교적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한 波多野 교수에게서 논문 지도를 받게 된 셈이었다.[68] 최호진은 입학 후 세 학기만에 이수과목 24단위(단위당 4시간이므로 현재로는 96학점)를 모두 끝내고 남은 세 학기 동안 波多野 교수의 세미나 수업에 출석했다.[69]

---

66) 高木幸子, 荒牧正憲 編, 『高木暢哉 : 人と學問』, 九州大學出版會, 1982, 229-231쪽.

67) 金鍾大, 「나의 留學時節(6)」, 『每日經濟新聞』, 1983.1.8. 波多野는 패전 후 石濱知行, 向坂逸郎, 高橋正雄 세 교수의 복교를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이를 관철시켰으며, 교수 퇴직 후에는 정치인으로 변신해 사회당에 참여하여 片山內閣에서 農林大臣를 지냈으며 사회당의 좌우분열 후에는 우파사회당에서 이론적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이러한 행보는 그의 학문성향을 짐작케 한다. 波多野에 대해서는 『九州大學五十年史 學術史 下卷』, 九州大學創立五十周紀念會, 1967; 渡部恒夫, 「波多野鼎の社會政策論における社會政策と最小限綱領の未分化·混同問題」, 『鹿兒島經濟論集』, 44-1, 2003 참조. 최호진은 波多野鼎이 당시 학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수였다고 회고했으며, 그를 진보적인 자유주의자로 평했다. 石川捷治 編, 앞의 책, 25쪽.

68) 그가 경제사연구에 뜻을 두고 있었으면서도 경제사 연구자가 아닌 波多野鼎을 지도교수로 택한 데에는 당시 『日本近世商業資本發達史論』, 『歐洲經濟史硏究』 등을 썼던 경제사 주임교수 遠藤正男이 병으로 휴직하고 있었고, 1942년 5월에서야 그의 뒤를 이어 宮本又次가 경제사 교수로 부임한 사실도 영향을 준 것 같다.

69) 당시 일본 대학에서는 졸업 전에 자신의 전공분야를 정해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졸업논문을 써서 제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 졸업논문을 작성하는 수업을 흔히 '제미'(ゼミ, seminar의 일어식 발음)라고 불렀다. 보통 매주 1회 수업을 하고 1년에 두어 차례 교외합숙을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수강생들은 지도교수, 그리고 선후배간에 각별한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李廷煥, 『象牙塔과 公職과 그리고 企業의 언저리에서』, 私家版, 2000, 33쪽. 최호진은 이를 계기로 波多野 교수의 수제자격인 高木暢哉, 馬場克三 등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 같다. 해방후

이 세미나 수업에서는 리카도의 지대론, 힐퍼딩의 금융자본론, 아시아적 생산양식 등을 다루었던 것으로 보인다.[70]

한편, 최호진은 九州제대 유학시절 크게 보아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나름의 학문세계를 구축해 갔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첫 번째는 전술한 波多野 교수의 지도였다. 세미나수업, 그리고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서 학업에 대한 지도를 받았고, 그의 열정적인 학업 태도에 감동한 波多野 교수로부터 각별한 신임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41년 학부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 남아 연구생활을 계속하기를 희망했다. 波多野 교수의 지도를 받아 "일제하의 조선의 화폐정리와 금융조합"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해 조수에 지원했는데, 결과는 합격이었다.[71] 당시 한국인으로서 제국대학의 조수 임용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지도교수의 후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수에 임용된 뒤 그는 화폐금융과 경제사 도서가 가득 차있는 화폐금융연구실을 배정받았다. 경제사 연구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받은 셈이었다.

2년여의 조수생활을 마친 뒤 1943년 10월에는 당시 새로이 생긴 대학원 특별연구생(이하 특연생)에 임용되었다. 특연생은 전시하 군부의 징집제에 대응하여 문부성이 고급 인재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긴급히 만든 정책이었다.[72] 일본정부는 특연생 1기생으로 약 500명을 선발하여 병역을 면제해 주고 수업료 면제, 2년간 학자금(월 90원 이상) 지급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연구년한의 150% 취직 의무만을 부과하였다. 매우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이 때문에 특연생에 선발되면 조수나 기타 교원에 채용된 것보다 좋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이 제도 덕분에 최호진은 군입대를 면제 받고 게다가 장학금 혜택까지 받아가며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런데 九州제대의 1기생 선발 정원은 58명이었고, 그 가운데 법문학부 정원은 15명에 불과했다. 파격적인 조건을 감안할 때 경쟁이 치열했을 터인데 이런 혜택을 한국인 유학생이 누리기는 매

최호진은 이들의 초청으로 九州대학에 수차례 방문하였다. 石川捷治 編, 앞의 책, 46-47쪽.

70) 高仁淑, 앞의 글, 194쪽.

71) 최호진, 앞의 책, 1991, 249쪽. 추론이지만, 그가 졸업논문 주제로 화폐정리사업과 금융조합을 선택한 데에는 개항기 화폐제도의 변화를 연구했던 김광진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다.

72) 西村正守, 「第2次大戰末期における大學院特別研究生制度を回顧して」, 『レファレンス』, 36-12, 1986, 29-57쪽.

우 어려웠다. 波多野 교수의 각별한 신임과 후원이 없었더라면 여기에 뽑히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했다.[73]

최호진의 학문세계 형성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던 다른 하나의 요인은 九州제대에서 맺은 교우관계였다. 학부 때 같이 입학한 한국인 학생은 모두 5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농학부에 다니던 金俊輔와 각별한 관계를 맺었다.

> 김준보는 대학 동기동창이다. 그는 농(학)부였는데도 경제학 강의 시간에 거의 나와 열심히 듣곤 했다. 경제학 강의뿐만 아니라 법학부 강의도 열심히 들었다. 일이 있어 강의를 못 들었을 때는 노트를 빌려 베끼기까지 했다. 그는 학교 다닐 때 비장한 각오로 머리를 박박 밀어 버리고 오직 공부에만 골돌했다.……그와 나는 무미건조한 생활을 하면서 오직 공부하는 경쟁만을 거듭했다.[74]

김준보는 최호진 보다 1년 늦은 1915년 전남 영암에서 출생하여 이리농림학교와 수원고등농림학교를 거쳐 九州제대 농학부에 입학하였는데, 애초 학계 진출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가정환경 때문에 그 뜻을 접고 고등문관시험 응시와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75] 이런 이유로 삭발까지 하며 향학열을 불태웠고 자신의 전공인 농학 이외에 경제학, 법학 강의까지 다방면으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최호진은 김준보의 열렬한 학업 태도에 크게 자극을 받았던 것 같다. 두 사람은 서로의 하숙방 전등이 언제 꺼지는지를 살피며 다투어 공부할 정도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었다.[76] 김준보는 훗날 서울대학교 교수, 전남대학교 총장, 고려대학교 교수 등을 지내며 한국경제학회, 한국농업경제학회, 한국통계학회 회장, 학술원 회원 등을 역임하고 농업경제학, 통계학, 경제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는데, 이렇게 보면 해방 이후 한국 경제학계를 이끌어 갈 두 거두가 九州제대에서 조우하여 서로의 학문적 발전을 북돋운 셈이다.

---

73) 최호진은 연구실에 있을 때 고등경찰이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군대에 가지 않는 이유를 따지며 압력을 가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연구에 방해받지 않도록 波多野 교수가 미리 알려주었다고 회고했다. 石川捷治 編, 앞의 책, 45쪽.

74) 『名士交遊圖 第1卷』, 週刊시민社出版局, 1977, 322-324쪽.

75) 김준보에 대해서는 尹起重, 「金俊輔 선생님을 추모하며」, 『학술원회보』, 174, 2008; 윤기중, 「김준보, 한국 농업경제학의 거목」, 『한국사시민강좌』, 50, 2012 참조.

76) 최호진, 앞의 책, 1991, 42, 129-131, 404쪽.

이러한 환경 속에서 최호진의 열성적인 학업 태도가 형성된 듯하다. 그는 "학문을 이루기 전에는 전혀 다른 일을 할 수 없다"고 독한 마음을 먹고, 금연, 금주, 금색의 철저한 금욕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의 말을 빌리면 한눈팔지 않고 오로지 강의실, 도서관, 서점으로만 순례했으며, 아예 연구실에 침대를 두고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기도 하였다. 같은 시기 九州제대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를 두고 "학구파 중의 학구파"라는 평판이 널리 퍼져 있었다.[77]

나중에 자세히 살피겠지만 해방 직후 폭발적인 필력은 사실 이 때의 열성적인 학업 태도에 의해 상당히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듯하다. 그는 해방후 교수 생활을 할 때도 연구실에 침대를 두고 공부에 매진했다고 하는데 그 자세의 토대가 이 때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그는 이 시기에 서점을 돌아다니며 도서를 집중적으로 모으기 시작했는데, 특연생으로 있을 때는 장학금에서 꼭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하고 전액을 책 구입에 투입할 정도였다. 이렇게 정성들여 모은 도서를 바탕으로 해방후 엄청난 규모의 장서를 소유하기에 이르렀다.[78]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학구열은 머지않아 큰 결실로 승화하였다. 그는 대학원 시절 조선후기 상업사, 금융사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1941년 여름부터 자신이 정리한 원고를 波多野 교수에게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의 도움을 얻어 1942년 10월에는 일본 慶應書房에서 『近代朝鮮經濟史』를 출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79] 전시통제기에 들어서 조선의 학계, 출판계는 완전한 침체, 암흑 상태에 있었다. 학계를 이끌던 학자들은 사상탄압을 받아 강제로 강단에서 추방되거나 자진해 물러났

77) 김병희, 『80인생을 회고한다』, 私家版, 1998, 102쪽. 최호진의 대학 후배인 김종대는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일화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하루는 친구 한 사람하고 3년 선배로서 경제과를 마치시고 연구실에서 논문을 준비하고 계시던 최호진 선배를 찾아뵌 일이 있었다. 『요즘 무얼하고 잇느냐』고 해서 우물우물 대답을 했더니 『시간을 아껴 공부를 하지 않고 돌아다닌다』고 야단을 치시는 것이 아닌가. 혼비백산해서 돌아왔던 일이 생각난다." 金鍾大, 「나의 留學時節(10)」, 『매일경제신문』, 1983.1.13; 金鍾大, 앞의 책, 430쪽. 최호진은 한때 지도교수에게 "군은 언제 자는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회고했다. 石川捷治 編, 앞의 책, 47쪽.

78) 최호진은 경제학 고전의 원본, 귀중본을 다수 소장하고 있었고 말년까지 다량의 장서 보유를 학자의 가장 큰 긍지로 여겼다. 최호진, 앞의 책, 1991, 259-262, 271-274, 325-326쪽.

79) 崔虎鎭, 『近代朝鮮經濟史』, 慶應書房, 1942.

고, 학교에 남아 있던 학자들도 총동원정책에 끌려다니며 제대로 연구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80] 비록 일본에서 일본어로 출간된 아쉬움은 있었지만 한국인의 손으로 제대로 된 학술서적이 창씨개명하지 않은 한국인의 이름을 달고 출간된 사실은 한국의 학술계가 아직 살아있다는 자부심을 일깨워준 쾌거였다. 이를 계기로 최호진의 이름은 국내에도 널리 알려졌던 것 같다.

그렇다면 전시말 그의 명성을 드높인 『근대조선경제사』의 저술을 통해 그가 규명하려고 했던 연구내용은 무엇일까.[81] 우선 그는 서문에서 일차적인 저술동기를 "우리 반도에의 애향심"에서 찾았는데, 엄혹한 전시통제기를 감안할 때 이는 반일의식을 기반으로 한 민족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환경과 교육과정을 통해 강한 반일의식을 가졌던 그로서는 이 책을 민족해방을 전망하는 학술적 수단의 하나로 여겼던 것 같다. 아울러 그는 서문에서 조선말기는 '동양적 정체성'의 특징적인 諸相을 사회의 전면에 노정한 시기이므로 이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서 '과학적 연구'란 다름 아니라 과학적 역사관, 즉 사적유물론에 기반한 역사연구를 의미했다. 또한 조선말기는 봉건사회의 제모순을 집약적으로 顯現하고 다음 사회의 역사적 출발점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고 갈파하였고, 조선말기 봉건사회의 특징, 곧 '동양적 정체성'을 규명하려는 의지 아래 그의 한 부문사로서 상업사와 금융사를 다루고 있음을 언명하였다. 그가 말하는 '동양적 정체성'의 해명이란 마르크스주의 역사이론인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에 기초한 정체성의 해명을 의미했다.

보성전문 시절 이래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둘러싼 백남운과 김광진의 논쟁 등을 살펴보며 그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이에 의거해 조선말기의 정체성 해명이 중요한 연구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시기 '정체성' 파악은 자주적인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하지 못하고 식민지로 전락한 한국 근대사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82] 그러나 최호진은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을 전면에 내세워 분석에 임하지는 않았다. 물론

80) 당시의 학계 사정은 兪鎭午, 앞의 책, 1977, 78-125쪽; 申泰煥, 『想念의 길목에서』, 正宇社, 1976, 31-40쪽; 申泰煥, 『大學과 國家』, 亞細亞文化社, 1983, 213-219쪽; 高承濟, 『經濟學者의 回顧』, 經研社, 1979, 57-62쪽 참조.

81) 이하 별다른 주가 없는 한 崔虎鎭, 『近代朝鮮經濟史』, 慶應書房, 1942, 1-2쪽.

82) 姜晋哲, 『韓國社會의 歷史像』, 一志社, 1992, 117쪽.

엄혹한 전시통제기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그 보다는 그가 의도적으로, 아직 논쟁이 완결되지 않은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을 전면적으로 연구에 도입하지 않은 채 일단 연구목표를 '동양적 정체성'의 해명에 두고 조선말기 상업사, 금융사에 대한 실증 연구에 비중을 높이 두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행중의 서평은 매우 시사적이다. 윤행중은 종래의 자료를 체계화하여 '과학적 입장'에서 이조 봉건경제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데에서 이 책의 연구사적 의의를 찾으면서도, 이 책이 보다 적극적인 이론적 해명을 추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었다.[83] 게다가 윤행중은 이 책이 객주, 거간, 廛, 房, 假家, 부상 등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고도로 분화된 상업 제형태의 사회적 기능을 설명하고 있고 고리대자본의 특징, 형태, 기능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통독을 통해 조선말기의 상업사, 금융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말하자면 이 책은 특정 이론의 적용보다는 이조 말기의 상업, 금융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데에 치중했던 것이다.

최호진의 이러한 연구 태도는 이 책에서 활용한 사료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가 활용한 사료는 조선왕조실록, 법전, 민정자료, 문집, 조선총독부 자료, 금융기관 자료, 간행물, 일본인과 외국인의 보고서와 여행기 등이었고, 경성제대에 소장된 도서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그때까지 이 시기 상업사, 금융사 연구에서 활용된 적이 별로 없었던 방대한 규모의 사료였다. 사료 확보에 엄청나게 공을 들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방대한 사료를 동원해 실증한 사실들이 자신의 '정체성' 이론에 다소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이론에 꿰어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았다.[84] 그대로 놔두었다. 실천을 위해 역사를 개조해서는 안된다는 사료에 기반한 실증연구 태도였다.[85]

---

83) 尹行重, 「崔虎鎭著『近代朝鮮經濟史』」, 『每日新報』, 1943.1.10.

84) 홍성찬, 앞의 글, 2011, 308-311쪽.

85) 그가 사료에 입각한 실증연구를 중시했던 사실은 『근대조선경제사』 출간 이후 번역 작업에 착수하면서 경제사 이론서가 아니라 한말 조선을 여행했던 외국인의 여행기를 선택한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책 제목은 W. R. Carles, Life in Korea, London, New York : Macmillan, 1888이고, 번역원고의 제목은 『朝鮮の自然と社會-朝鮮における生活』이었다. 三省堂에서 출간하기로 했는데, 출판사가 폭격을 당해 교정지만을 남기고 출판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인도금융업에 관한 책도 번역했으나 역시 폭격으로 출판하지 못했다. 책 제목은 L. C. Jain, Indigenous Banking in India, London : Macmillan and Co., 1929이고 번

이 책은 출간 이후 크게 인기를 끌어 1943년 5월에는 재판을 발행했으며, 최호진은 도처에서 격려 편지를 받았다. 경제연구회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백남운으로부터 손수 쓴 격려 엽서를 받은 것도 이 때의 일이었다. 경제사연구에 뜻을 둔 이래 학계의 거목 백남운에게 존경심을 품고 있던[86] 최호진으로서는 당사자로부터 직접 격려 엽서를 받고 크게 감동했던 것 같다.[87] 이를 인연으로 그해 겨울방학을 이용해 일시 귀국한 최호진은 백남운을 찾았고, 이렇게 하여 둘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다.[88] 해방 이후 두 사람이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학술활동을 벌이게 된 계기가 여기에서 시작된 셈이었다.

Ⅲ. 해방 이후 학문세계의 전개와 학술활동

1. 해방직후의 학술활동

1945년 8월 15일 최호진은 서울에서 해방을 맞았다. 이미 패전의 기운을 감지한 波多野 교수의 특별한 후원으로 1945년 4월 九州제대에서 출장 명령을 받아 서울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경성제대에 연구실까지

역원고의 제목은『印度土着金融』이다. 홍성찬, 앞의 글, 2011, 310쪽.

86) 최호진은 백남운을 두고 "일제시대부터 학문적 능력과 도덕적 품성으로 학계의 거목으로 꼽혔다"고 회고했다. 이공순,「백남운-마르크스주의 조선경제사의 시작과 완성」,『발굴 한국현대사인물 2』, 한겨레신문사, 1992, 233쪽.

87) 최호진은 이 엽서가 비를 맞아 온통 잉크가 번져 있었다고 회상했다. 일견 사소해 보이는 일을 수십년이 지나도록 기억한 사실은 그가 이 일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최호진, 앞의 책, 1991, 427-428쪽.

88) 백남운이『조선사회경제사』(1933)를 집필할 때는 일차적으로 세계사적 보편적인 역사법칙이 한국사의 발전과정에 관철되고 있었던 사실을 밝히는 데에 초점을 두었지만,『조선봉건사회경제사(상)』(1937)을 집필할 때에는 자신의 연구목표를 '아시아적 봉건제'의 특성을 해명하는 데에 두어 아시아적 특수성=정체성을 고려하는 쪽으로 연구 방향을 조정하였고, 당시 강인하게 잔존하는 농촌사회의 봉건적 모순의 역사적 기원을 일정하게 아시아적 정체성과 관련시켜 이해하고 있었다. 게다가 1938년 연희전문 교수에서 물러난 뒤 그의 연구는 고려시기에 멈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기 경제사 연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고, 상과 교수의 경력과도 관련해 상업사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최호진의 연구에 크게 주목했던 것 같다. 방기중, 앞의 책; 白南雲,「장꾼의 來歷-朝鮮의 市場制度」,『東光』, 4-2, 1932.2, 24-27쪽.

배정받아 조선경제연구소와 규장각의 소장 문헌을 조사하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89] 그가 해방 이후 학술계의 변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자리하고 있었다.

해방이 되자 독립국가건설의 기운은 급격하게 고조되었다. 그러나 "新朝鮮 건설이라는 새롭고도 성스러운 길"[90]에 들어선 한국사회는 그 중대 사명을 이루지 못한 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적으로 "미증유의 혼돈기"[91]에 빠져들고 있었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좌익과 우익의 신국가건설론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양측을 중재하려던 중간파 노선이 등장하였지만, 좌우 진영의 격렬한 공격을 받아 오히려 갈등과 대립을 확산시킨 채 형해화되고 말았다.

학술계도 극심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었다. 일제의 식민지교육을 청산하고 전시기에 파탄된 교육을 재건하는 일이 긴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신교육의 개혁 방향을 두고 세력간 갈등이 치열해졌다.[92] 당장 한국 유일의 대학인 경성제대를 새로운 독립국가의 명실상부한 고등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일이 시급했다.[93] 그러나 사정은 좋지 않았다. 미군정에서 경성제대를 접수하여 주둔군 사령부로 활용하는 바람에 물적 시설이 훼손되었고,[94] 경성제대 소속 일본인 교수들과 일본인 학생들이 빠져나가 인적 공백도 극심했던 것이다.

우선 교명을 경성제국대학에서 '제국'을 뺀 경성대학으로 고치고, 독립국가 건설에 필요한 경제학, 정치학 전문인력 수요를 감안해 법문학부 내에 경제학과와 정치학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일본인 교수를 대체할 한국인 교수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했다. 당연히 학계에서는 조선 '최고의 학

89) 해방 이후 학술활동에 대해서는 이하 별다른 주가 없는 한 최호진, 앞의 책, 1991, 209-215, 391-406, 419-440쪽 참조.
90) 崔虎鎭, 「新朝鮮建設과 知識階級의 使命」, 『民心』, 2, 1946.3, 55쪽.
91) 崔虎鎭, 『一般經濟史』, 理想書院, 1946, 2쪽.
92) 해방직후 학계 분위기는 吳天錫, 『老兵의 오솔길』, 大韓敎育聯合會, 1974, 97-153쪽; 吳天錫, 『외로운 城主』, 光明出版社, 1975, 81-118쪽; 兪鎭午, 『養虎記』, 高麗大學校出版部, 1977, 158-198쪽 참조.
93) 이 시기 경성대학에 대해서는 강명숙, 「1945~1946년의 경성대학에 관한 시론적 연구」, 『교육사학연구』, 14, 2004; 방기중, 앞의 책, 1992, 236-240쪽 참조.
94) 미군정의 장성급 장교들이 교수 연구실을 차지하고 있었고, 주둔군에 의해 시설 파괴와 약탈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최호진은 이 때 미군들이 수많은 귀중본들을 난방용으로 태워버리거나 고본상에게 팔아버렸다고 회고했다. 최호진, 앞의 책, 432쪽.

부'인 경성대학 교수진 임용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교수진 임용은 개인의 명예를 떠나 작게는 경성대학의 장래를 결정짓고, 크게는 고등교육의 전체 방향을 정하는 길로 연결될 일이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미군정에서는 학계의 명망이 두터웠던 백남운에 주목해 그에게 법문학부 교수진 편성의 전권을 주려고 했지만, 이를 견제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95] 결국 백낙준, 백남운, 이병도, 조윤제, 유진오의 다섯 사람이 법문학부의 교수진 인선을 맡게 되었고, 백낙준이 법문학부장에 임명되었다. 경제학과장에 임명된 백남운은 경제학과 교수진 편성만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1945년 12월 24일자 미군정청 임명사령 제56호로 발표된 경제학과 교수진에는 백남운(재정학), 윤행중(경제학), 박극채(화폐론), 강정택(농업정책), 황도연(통계학) 교수와 최호진(경제사) 조교수의 6명이 최종 결정되었다.[96] 백남운은 동경상대, 윤행중, 박극채, 황도연은 경도제대, 강정택은 동경제대, 최호진은 九州제대 출신이었다. 전원 일본의 제국대학과 관립대학 출신으로 구성된 것이다. 한편, 해방 이전에 백남운은 연희전문, 윤행중과 박극채는 보성전문, 황도연은 만주건국대학 교수를 지냈으며[97] 강정택은 장기간 동경제대 조수를 거쳐 전임연구원으로 활약하고 있었다.[98] 모두 당시로서는 최고의 연구와 강의 능력을 구비한 인물이었다. 이들에 비해 최호진은 교수경력이 없고 연구경력도 짧았으며 나이도 가장 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30대 초반의 나이로 한국 '최고학부'의 교수에 임명된 데에는 『근대조선경제사』의 발간 업적이 일차로 고려되었겠지만, 사실상 교수진 구성을 주도한 백남운의 절대적인 신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최호진은 국립대학인 경성대학을 기반으로 자신의 학술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최호진의 학술활동은 이미 해방직후부터 백남운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백남운은 해방되자마자 그 이튿날인 1945년 8월 16일에 당시 각 학문 분야의 중견학자들을 망라하여 朝鮮學術院 창립

95) 兪鎭午, 앞의 책, 1977, 170쪽.
96) 『東亞日報』, 1945.12.28; 『自由新聞』, 1945.12.28; 『官報』.
97) 황도연에 대해서는 鄭鍾賢・水野直樹, 「日本帝國大學의 조선유학생 연구(1)-京都帝國大學 조선유학생의 현황, 사회경제적 출신 배경, 졸업 후 경력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80, 2012, 478, 521, 524쪽 참조.
98) 강정택에 대해서는 이문웅, 「강정택 선생의 생애와 학문세계」, 『식민지 조선의 농촌사회와 농업경제』, YBM Si-sa, 2008 참조.

에 나서고 있었다.[99] 백남운이 긴급하게 조선학술원 창설에 나선 배경에는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중앙아카데미의 창설을 구상하고 있었던 사정도 있었지만,[100] 민족해방과 더불어 신국가건설 과업에 학술계의 능력을 총동원하려는 실천 의지도 담겨 있었다. 당시 백남운은 학술계의 사명은 각 방면의 전문학도와 지도적 기술자들을 집결하여 신국가건설에 협력하는 데에 있음을 강조하고, 자신은 이를 위해 정치단체와의 관련 없이 불편부당의 엄숙한 태도를 취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었다.[101] 그리고 조선학술원이 사상에 관계없이 명망 높은 학자들을 망라하여 조선학술계를 대표하는 국책연구기관이자 학술총본부로서 발전하기를 희망하였다. 이를 위해 『學術』이라는 이름의 기관지를 발행하고 연구기관 설치, 도서관 신설, 학술강의, 해외 학술교류, 유학생 파견 등의 구체적 사업도 계획하였다.[102] 당시 백남운은 건국의 위업에 직면한 지식인들의 사명은 과학을 총동원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민주성을 확보한 민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103] 학술원은 이를 달성할 일차적인 수단이었던 셈이다. 이미 일제말부터 백남운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최호진도 이러한 취지에 깊이 동감했던 것으로 보인다.[104] 그는 창립 준비부터 관여하여 실무진으로 참여하고 있었다.[105]

한편, 최호진은 1946년 5월 6일 백남운을 중심으로 民族文化硏究所가 설립되자 여기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민족문화연구소는 민족문화의 비판적 연구, 민족문화 건설 등을 구호로 내걸었던 학술문화운동단체였다.[106] 이 연구소에는 주로 20~40대 각 분야의 진보적인 지식인, 과학자들이 대거

99) 김용섭, 『남북 학술원과 과학원의 발달』, 지식산업사, 2005; 방기중, 앞의 책, 1992, 227-236쪽 참조.
100) 白南雲, 「學術基幹部隊의 創設-中央아카데미 創設」, 『東亞日報』, 1936.1.1.
101) 白南雲, 「學術院趣旨談話」, 『每日申報』, 1945.9.14; 「朝鮮學術院趣旨書」, 『學術』, 1, 1946.8, 229쪽.
102) 「朝鮮學術院의 할 일-白南雲씨의 말슴」, 『民衆朝鮮』, 1, 1945.11, 53쪽.
103) 白南雲, 「科學의 使命」, 『學術』, 1, 1946.8, 1-2쪽.
104) 崔虎鎭, 「新朝鮮建設과 知識階級의 使命」, 『民心』, 2, 1946.3, 51-55쪽.
105) 최호진, 앞의 책, 1991, 434-435쪽. 전술한 경성대학 경제학과 교수진도 백남운이 주도하여 설립한 조선학술원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백남운은 조선학술원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강정택, 박극채, 윤행중은 상임위원, 최호진은 실무진이었다. 결국 백남운은 조선학술원 주도인력을 중심으로 경성대학 경제학과 교수진을 편성했던 것이다. 조선학술원의 임원진과 실무진은 방기중, 앞의 책, 1992, 228-229쪽 참조.
106) 방기중, 앞의 책, 1992, 258-262쪽 참조.

참여하였으며, 이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술지『民族文化』를 간행하기도 했다. 최호진은 이 연구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우선 이 연구소의 기관지에 심혈을 기울여 쓴 장편의 논문을 기고했고,[107] 연구소가 학술원과 함께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문과학강좌를 개설하자 강사로도 활약하였다.[108] 이 강좌는 일반에게 고급의 학술지식을 보급할 목적으로 개설되었는데, 수강자격은 중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로 한정하고 대체로 150명 안팎의 인원을 2개월간 가르쳤다. 1946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모두 여섯 차례 열렸는데, 최호진은 한 번을 제외하고 매번 강의를 맡을 정도로 열성적이었다.[109]

그런데 애초 정치 참여에 선을 그었던 백남운은 한반도의 정세가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통일된 독립국가의 건설이 기대한 대로 진행되지 않자 국가건설의 문제는 좌우익이 제휴한 정치적 민족통일전선의 결성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자신이 직접 이를 해결하고자 정계 진출을 감행하였다. 1946년 2월 조선신민당 경성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민족문화연구소는 표면적으로는 학술문화운동을 표방한 순수한 학술단체임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연구소장인 백남운의 정치적 위치를 감안하면 이 연구소는 사실상 조선신민당 경성특별위원회의 외곽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백남운은 자신의 정치 투신을 계기로 최호진에게도 여러 차례 정계 입문을 권유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때마다 최호진은 학문 연구와 강의에 전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이를 거절했다.[110] 연구소의 문화학술활동에는 참여하지만 본격적인 정치 참여에는 선을 그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이 시기의 그는 백남운의 학술적, 사상적 동반자로서의 역할은 감당하고 있었지만, 정치적 동반자로서의 역할은 사양하고 있었다.

한편, 1945년 말 경성대학 경제학과 교수에 취임한 최호진은 이를 기반

107) 崔虎鎭,「近代朝鮮에 있어서의 生産力으로서의 農業用 勞動手段에 關한 硏究」,『民族文化』, 3, 1947.4, 1-48쪽.
108)『東亞日報』, 1946.9.24;『獨立新報』, 1946.9.22, 12.3, 1947.2.4, 4.1, 8.1;『京鄕新聞』, 1946.11.27, 1947.2.2, 3.30, 6.3, 8.1.
109) 최호진의 강의 기간과 강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1기(1946.9.25-11.24) 조선금융론, 2기(1946.12.9~1947.2.8) 자본주의발달사, 4기(1947.4.10-6.9) 인플레이션이론, 5기(1947.6.10-8.9) 화폐론, 6기(1947.8.10-10.9) 화폐와 신용이론.
110) 최호진, 앞의 책, 1991, 396쪽.

으로 본격적으로 학술활동을 전개하였다. 경성대학 경제학과를 한국 최고의 경제학 고등교육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강의와 연구에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우선 서양경제사, 경제사연습, 원서강독의 강의를 맡아 가르쳤다.[111] 특히 원서강독 시간에 1학기에는 국부론, 2학기에는 자본론을 가르쳤다. 九州제대 재학시절 波多野 교수에게 배운 대로 좌우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려 노력했던 것이다.

그런데 해방 직후 대학사회는 대혼란에 직면해 있었다. 신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 시급해지면서 대학의 역할은 크게 부각되고 있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112] 그간 억눌려왔던 학생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은 대팽창했지만, 이를 채워 줄 교수진이 부족했고 강의도 부실했다. 사실 일제 말기 일본의 폭압적인 언어정책에 따라 모든 강의를 일본어로 강요당했기 때문에 해방후 갑작스러운 한국어 강의는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했다. 교수와 학생 모두 일본어 강의와 일본어 교과서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한국어 교과서가 꼭 필요했지만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최호진은 가장 시급한 과제가 우리말로 된 교과서라고 생각했다.[113] 제일 먼저 자신의 강의록을 기반으로 교과서 편찬에 나섰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우선 경성대학에서 행한 경제사 강의안을 토대로 1946년 12월 5일 이상서원에서 『一般經濟史』를 펴냈다.[114]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우리나라 '최고학부'에서 우리말로 하는 최초의 경제사 강의라는 사실에 강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피력하고 있었다. 신생국가 탄생을 앞두고 근대국가의 흥망성쇠는 오로지 그 나라의 학문 수준에 좌우된다고 생각하여 후진적인 학문을 급속히 전진시켜 국가건설에 일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루라도 빨리 학도들이 학구에 몰두하여 뒤떨어진 학문 수준을 끌어올려주길 기대했다. 이

111) 최호진은 회고록에서 당시 서양경제사, 화폐론, 원서강독을 맡았다고 기억했지만, 실제로는 화폐론 강의를 개설하지 못하고 경제학연습 시간을 이용해 화폐와 신용에 대해서 가르쳤다. 최호진, 앞의 책, 1991, 433쪽; 崔虎鎭, 『貨幣論講義』, 民衆書館, 1947, 「序文」. 이외에도 최호진은 경성대학 예과에서 문과 이과 공통의 경제학개론을 담당하였고, 보성전문 상과에서는 경제학사, 경제사, 영어원서강독 등의 맡아 가르쳤다. 최호진, 앞의 책, 1991, 393쪽.

112) 해방이후 대학교육의 실정은 宋基澈, 『高麗大學校와 나』, 保景文化社, 2004, 1-9쪽 참조.

113) 최호진, 앞의 책, 1991, 212쪽.

114) 이하 별다른 주가 없는 한 崔虎鎭, 『一般經濟史』, 理想書院, 1946 참조.

점이 바로 그가 이 책을 저술한 일차적 동기였다.

그는 이 책에서 경제사 연구의 목적을 과거와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제관계를 인식하여 앞으로 도래할 轉形期에 변혁주체인 인민대중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천명하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사는 단순히 경제생활의 역사가 아니라 생산관계의 역사이며 그 변화를 탐구하는 역사라고 정의하였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그 역사를 짓는다"고 하여 역사학의 실천적 의의를 강조하고 사적유물론에 입각한 사회구성체 방법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가 보기에 자본주의는 이미 몰락기에 들어서 있었다. 머지않아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이 예견되었다. 이에 대한 학술적 대비가 바로 이 책을 저술한 근본적 동기였다.

사적유물론에 입각해 인류의 경제발전의 역사를 정리한 그의 책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열기가 크게 고양되어 있었던 당시의 지적 분위기와 맞물려 학술계와 출판계의 환호를 받았고 일반에게도 크게 각인되었다.[115] 이 책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출판사 사정으로 절판되자 1947년 9월 5일에 출판사를 바꿔 동방문화사에서 『經濟史大綱』이라는 이름으로 재출판하였다.[116] 몇몇 자구만을 수정하고 부록의 참고문헌을 보강하였지만 주요 내용은 변화가 없었다.

이어 1947년 11월 25일에는 민중서관에서 『貨幣論講義』를 출간하였다. 역시 경성대학 경제학과에서 개설했던 경제학연습 강의에서 '화폐와 신용'이란 주제로 가르친 내용이었다.[117] 그는 강의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외국어로 된 원서를 보며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 책 서문에서 九州제대 유학시절 처음 2년간은 화폐금융론 연구에 뜻을 두어 이를 공부했다고 밝히고, 금후 신조선 경제건설에서 화폐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학문이 일천한 상태에서 불충분하지만 향학열에 불타는 후학들에게 다소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출간한다고 저술 동기를 표명했다.

---

115) 이북만은 이 책을 가리켜 "확실히 주목할 가치 있는 노작"이라고 평했다. 李北滿, 「新刊評—一般經濟史」, 『獨立新報』, 1947.1.5. 당시 중학생이었던 박현채는 "1950년대 초반의 암울한 역사적 시기에 『일반경제사』는 나에게 역사의 내일을 밝게 비춰주는 한가닥 빛이었다"고 회고하였다. 박현채, 「나를 감동시킨 한권의 책」, 『新東亞』, 33-6, 1990.6.

116) 崔虎鎭, 『經濟史大綱』, 東邦文化社, 1947.

117) 崔虎鎭, 『貨幣論講義』, 民衆書館, 1947, 「序文」.

제1편은 화폐론, 제2편은 신용론, 제3편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화폐 신용의 제문제로 구성되었는데, 단순히 외국이론을 요약 정리해 소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전시말 조선은행의 발행고 같은 한국 통계를 이용하는[118] 한편, 당시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한국경제의 현실을 감안해 인플레이션의 형태와 영향, 그리고 각국의 불환지폐 정리 사례를 소개하는 등 이론과 현실의 조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학계에서도 이론 소개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고려해 서술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119]

1949년에는 앞서의 『화폐론강의』에 제4편 금융론을 추가해 『貨幣金融論』으로 개정하였다. 애초 화폐론과 별개로 금융론을 단독 저서로 발행하려 하였으나 양자를 분리하기 보다는 합치는 편이 독자의 공부에 편리하겠다는 판단 아래 금융 이론의 개괄적인 논술을 보강해 책을 발행했던 것이다.[120]

1948년 8월 10일에는 『經濟學大要』라는 이름으로 백양당에서 경제학 개론서를 출간하였다. 역시 경성대학 예과, 보성전문, 동국대학 전문부 및 문학부 등에서 강의한 경제학 강의노트를 토대로 하면서 경제지식의 보급을 위해 중학정도 이상의 일반인도 읽을 수 있도록 평이하게 서술한 점이 특색이었다.[121] "건국이란 위업을 목전에" 두고 근대자유주의경제학 이론을 소개하기 위함이었다. 제1편 생산론(생산요소, 기업), 제2편 교환론(가치론, 가격론, 화폐론, 금융론, 상업), 제3편 분배론(임금, 이윤, 지대), 제4편 경기변동론(경기변동, 공황)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주로 미시경제학을 위주로 하면서 경기변동론을 첨가한 형태였다. 1948년 12월 15일에는 『경제학대요』에 제5편 경제학의 발달 부분을 추가하여 『경제원론』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어 발행하였다.[122]

1949년 9월 10일에는 백양당에서 『財政學』을 발행하였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재정현상을 개괄적으로 살피되 이를 될 수 있는 대로 사회적, 역사적으로 서술하고자 하는 집필원칙을 밝혔다.[123] 이에 따라 경비팽창의 역사적 경향, 조세 부담의 증대, 공채 발행의 팽창 등의

---

118) 崔虎鎭, 위의 책, 105쪽.
119) 全錫淡, 「新刊評-貨幣論講義」, 『獨立新報』, 1948.1.4.; 高承濟, 「崔虎鎭 著 『貨幣論講義』」, 『京鄕新聞』, 1948.1.25.
120) 崔虎鎭, 『貨幣金融論』, 博文出版社, 1949, 「序言」.
121) 崔虎鎭, 『經濟學大要』, 白楊堂, 1948, 「序」.
122) 崔虎鎭, 『經濟原論』, 博文書館, 1948.
123) 崔虎鎭, 『財政學』, 白楊堂, 1949, 「序」.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책은 경비, 수입, 조세제도, 관공영기업, 공채, 예산, 지방재정 등 재정 전반에 관해 다루었는데, 주로 제도 설명에 많은 비중을 두어 서술하였다. 심오한 재정학 이론서라기보다는 신국가건설기에 시급히 요청되는 국가재정현상의 기본지식을 개관하여 소개하는 데에 치중했던 것이다. 그는 일찍부터 재정학의 대가인 바그너(Adolf Wagner)의 학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가 저술한 『재정학』(전4권) 원본을 소장하며 꼼꼼히 살필 정도로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124] 이러한 관심과 더불어 신국가건설 이후 재정문제의 해결이 더욱 긴요해지라는 생각이 결합하여 이 책을 저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이 시기 그는 경제사, 화폐금융론, 재정학, 경제원론 등의 대학 교재를 저술하여 대학생들의 경제학 공부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일반인에 대한 경제지식의 보급을 위해서 엄청난 정열을 쏟고 있었다. 근대국가의 흥망성쇠는 오로지 그 나라의 학문 수준에 좌우된다는 신념 아래 학문발전을 통해 신국가건설에 일조하려던 그의 굳건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게다가 경제사 교과서에서는 유물사관에 입각한 역사 연구를 강조하고 자본주의의 몰락과 새로운 사회발전단계로의 이행을 전망하면서도, 화폐론, 경제학대요 등의 교과서에서는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재정학 교과서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의 재정현상을 개괄적으로 살피고 있었다. 일견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해방 이전 형성된 그의 학문세계가 좌우의 경제이론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습득하여 내면화하고 있었고, 이론보다는 현실을 앞세운 그의 학문태도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방직후 경성대학 경제학과 교수로서 경제학도 양성과 학문 발전을 통해 신국가건설에 일조하려던 그의 의지는 난관에 봉착하고 있었다.[125] 우선 심혈을 기울였던 경성대학 재건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경성대학의 운영 방향을 두고 학내 갈등이 계속되었다. 일부 교수들의 친일 논란, 총장선임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都相錄 교수의 파면[126]을 계기로 제기된 대학자치 문제 등은 이러한 갈등을 심화시켰는데, 거기에 예기치 못

124) 최호진, 앞의 책, 1991, 325-326쪽; 『나를 감동시킨 이 한권의 책』, 국립중앙도서관, 1993, 82쪽.

125) 이하 별다른 주가 없는 한 최호진, 「내가 겪은 8.15-경성대 재건과 국대안 파동의 와중에서」, 앞의 책, 1991 참조.

126) 상세한 경위는 김기석, 「국립서울대학교의 창설에 관한 일 연구」, 『한국 교육의 성장과 개혁』, 羅汕朴容憲教授停年記念論文集刊行委員會, 1997, 16-17쪽.

한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이하 국대안)이 등장하면서 경성대학 내부는 격심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말았다.[127] 국대안은 기존의 경성대학과 9개의 관립과 일본인 사립 전문학교 등을 통폐합하여 9개 대학과 1개 대학원으로 구성된 종합대학으로서 국립서울대학교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128]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제기된 이 안에 대해서 당장 학생, 교수들의 반발이 시작되었고, 찬반을 둘러싼 대립은 실상과는 달리 우익과 좌익의 정치이념으로만 단순 연결되어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부추겼다.

한편, 학무국이 경성대학 이공학부 수석교수이자 물리학계의 권위였던 都相錄 교수를 교수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파면조치를 내리자 대학자치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한 백남운은 사표를 제출하여 항의하였고[129] 이에 동조하는 교수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법문학부장 趙潤濟가 독단적으로 입시과목을 변경한 데 항의하여 최호진을 포함한 법문학부 교수 16명(경제학과 교수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대학자치의 확보를 둘러싼 내부갈등은 더욱 증폭되었다.[130] 이 와중에 터진 국대안 발표는 경성대학 경제학과 교수들이 더이상 학교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학부제 독립과 대학자치를 약속받고서 경성대학에 합류했던 백남운을 비롯한 경제학과 교수진은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루어지는 국대안을 민주교육의 유린으로 간주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이로써 경제학과 교수 전원의 사임이 확정되고 결국 경제학과는 폐과되는 비운을 맞았다.[131] 경성대학 경제학과를 한국 최고의 경제학 고등교육기관으로 만들려고 했던 최호진의 꿈은 1년여 만에 좌절하고 말았다.

경성대학 경제학과의 폐과 이후 백남운은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제창하며 더욱 정치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최호진은 그를 따라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강단을 지키는 길을 택하였다. 당시 동국대학에서 정경학부를 신설하고 그에게 교수 임용을 제의하자 이에 응했던 것이다. 최호진은 이 학교 초대 정

127) 국대안 파동에 대해서는 최혜월, 「미군정기 국대안반대운동의 성격」, 『역사비평』, 1, 1988; 崔光晩, 「國大案 觀徹에 관한 再考」, 『教育史學研究』, 2·3, 1990; 김기석, 앞의 글; 강명숙, 「국립서울대학교 설립 과정에 대한 재론」, 『한국교육사학』, 26-1, 2004 참조.
128) 『東亞日報』, 1946.7.14, 7.16, 7.17.
129) 『獨立新報』, 1946.6.2, 6.3, 6.4.
130) 『中央新聞』, 1946.6.29; 『獨立新報』, 1946.6.29.
131) 최호진, 앞의 책, 1991, 399쪽.

경학부장에 취임하여 정경학부 발전에 전력을 기울였다. 동북제대 출신의 全錫淡과 일제하 경제평론가로 이름을 떨쳤던 印貞植을 영입해 교수진을 편성하였다. 이들은 모두 그와 함께 민족문화연구소에서 활약한 연구원 출신이었다. 그는 이 시기 전석담과 함께 박문출판사에서 경제학전집의 출판 기획에도 참여하였다.[132] 당시 동원 가능한 연구자들을 최대한 확보해 모두 30권으로 된 방대한 규모의 경제학전집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신문 광고에 23권의 책 제목과 저자를 예고할 정도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여러 사정이 겹치면서 6권까지만 내고 종결되고 말았다.[133] 이들은 전집 발간사에서 민족의 富强은 학문에 달려 있지만, 학문이 권력에 유린되면 무력보다 위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의 파악과 직관 위에 이루어진 학문의 보편화를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34] 전집 발간의 이유는 현실에 바탕을 둔 경제학 지식의 보급을 위해서였던 것이다.

한편, 경성대학 재건이 난항을 겪고 국대안으로 귀결되면서 그리고 분단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월북을 선택해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백남운, 윤행중, 박극채, 황도연은 이 길에 합류하였다. 한국전쟁기의 일이지만 동국대학에서 함께 교편을 잡았던 전석담과 인정식도 월북을 택했다. 최호진에 의하면 백남운은 월북할 때 그에게 같이 갈 것을 권유하였는데, 그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135]

최호진이 백남운의 월북 권유를 뿌리친 데에는 강단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사실 이 시기 대학사회는 대혼란에 직면해 있었다.[136] 전문학교가 대거 대학으로 승진되고 학제가 바뀌면서 전공을 바꾸

---

132) 『東亞日報』, 1948.11.10.

133) 최호진은 이를 계기로 자신의 책 『일반경제사』를 축약해 쓴 『경제사』를 이 전집의 제1권으로 발행하였다. 崔虎鎭, 『經濟史』, 博文出版社, 1948.

134) 〈經濟學全集發刊辭〉(1948.12.1).

135) 1946년 9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을 전후하여 백남운과 절친했던 김광진이 월남하여 수십명의 학자와 접촉하여 월북을 도왔다고 한다. 김광진은 이 때 유진오를 만났는데, 정황상 최호진도 만났을 것이다. 박병엽, 『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 선인출판사, 2010, 246-247쪽; 유진오, 앞의 책, 1977, 189쪽.

136) 해방이후 대학사회는 강명숙, 「미군정기 사립대학 설립과 고등교육기회의 확대」, 『아시아교육연구』, 4-1, 2003; 강명숙, 「해방직후 대학 교수 충원의 실태」, 『교육사학연구』, 12, 2002; 강명숙, 「대학의 제도적 기반 형성과 학술 여건(1945~1955)」, 『한국근현대사연구』, 67, 2013; 정준영, 「해방 직후 대학사회 형성과 학문의 제도화」, 『한국근현대사연구』, 67, 2013 참조.

거나 아예 대학을 바꾸는 학생들이 속출했고, 교수들의 이직도 잦았다.[137] 그 뿐만이 아니었다. 교수들은 정계와 관계에 기웃거리면서 연구와 강의에 몰두하지 않았고, 정치에 빠져 버린 학생들은 본업인 공부에 충실하지 않았다.[138] 수업도 부실했고, 학원은 잦은 데모로 몸살을 앓았다. 최호진은 이런 현실을 개탄했다. 당시 최호진은 학자는 학문을 통하여 건국에 공헌해야 하고, 연구와 강의를 통해 학자를 양성하는 일이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139] 이 때문에 학자, 학생, 학교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모든 정치세력에 강한 혐오감을 피력하였고, 학생들에게는 학업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세력에 이용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140] 정치세력에게는 학원을 정당의 부속물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학생과 학교를 지키려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 시기에 그가 교과서 출간에만 힘을 기울인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 그는 본업인 한국경제사연구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해방 이전 본격적인 적용을 유보하고 있었던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여 조선 후기를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던 것이다. 이미 『일반경제사』를 저술할 당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을 별도의 장으로 상세히 다루면서 큰 관심을 표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예견된 일이었다.

1946년과 1947년에 이와 관련해 몇 차례 논문을 발표하고[141] 이를 묶어서 1947년 5월 1일 민중서관에서 『近代朝鮮經濟史硏究 第一卷』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하기에 이르렀다.[142] 그는 이 책의 서문과 서설에서 아시아

137) 당시 교수들의 자리이동은 빈번했다. 趙璣濬, 『나의 人生 學問의 歷程』, 日新社, 1998, 43-46쪽.

138) 宋基澈, 앞의 책, 1-9쪽.

139) "다들 이름만 걸어놓고 정치한다고 돌아다녔으니 혼자서 강의하랴 교재마련하랴, 신문 잡지에 글 쓰랴, 강연하랴. 엄청난 짐이 어깨에 지워져 있었어요." 최호진, 앞의 책, 1991, 434쪽.

140) 崔虎鎭, 「現下學生에게 告함」, 『新天地』, 3-2, 1948.2, 22-26쪽. 그는 늘 학생들에게 세속적 명예와 이익에 눈이 어두워 권력자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의 말을 남겼다. 崔虎鎭, 「學生과 生活」, 『學生과 學園』, 首都文化社, 1950.

141) 崔虎鎭, 「朝鮮人의 勞動力上의 特質(一)」, 『殖銀調査月報』, 1-1, 1946.4; 崔虎鎭, 「朝鮮人의 勞動力上의 特質(二)」, 『殖銀調査月報』, 1-2, 1946.8; 崔虎鎭, 「近代朝鮮에 있어서의 生産力으로서의 農業用 勞動手段에 關한 硏究」, 『民族文化』, 3, 1947.4.

142) 崔虎鎭, 『近代朝鮮經濟史硏究 第一卷』, 民衆書館, 1947. 조선인의 노동력에 관한 논문 2편은 이 책의 2장에 들어가고, 노동수단에 관한 논문은 이 책의 4장으로 삽입되었다.

사회의 후진성을 해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작업과제임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이미 붕괴과정에 있던 과거 즉 "아세아적 이조봉건사회의 말기"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제 사회로의 이행기를 살펴 그 운동법칙을 이해하면 향후 자본제 사회의 붕괴와 새로운 생산단계로의 이행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의 조선말기 사회 분석은 실천적인 역사의식과 결부되어 있었던 셈이다.

한편, 그는 이 책에서 조선말기 아시아적 봉건제사회의 후진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당시의 주된 산업인 농업에서의 노동력, 노동과정 조직, 노동수단의 특질을 해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조선말기 외국인들의 시찰보고서나 여행기 등을 통해서 볼 때 조선 농민의 기질을 비굴, 從順, 무지, 무기력 등으로 특징짓고, 이러한 특성은 소수의 대토지소유자와 무수한 소토지점유자의 경제관계 즉 조선의 '아시아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아시아적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물문제의 해결이 중요하였고, 이 때문에 노동과정은 대규모 노동력의 동원이 요구되는 수리관개사업의 속성상 '同力'과 같은 공동노동의 조직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경영의 집약화는 농업기구, 노동수단의 미발달로 연결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말하자면 아시아적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수리관개사업이 중시되었고 이 때문에 무기력한 노동력, 공동노동 조직, 저발달한 노동수단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에 입각한 '정체성론'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두 가지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그가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별로 활용된 적이 없었던 사료를 포함한 방대한 규모의 사료를 동원했다는 점이다. 당시 그의 연구를 두고 방대한 양에 달하는 원전을 정밀히 인용해 가며 "과학적 메스"를 가하였다는 지적이나[143] "풍부한 자료를 충분히 섭렵하고 활용"한 데에 대해 "다대한 경의"를 표한다는 찬사는 단순한 수사만은 아니었다.[144] 게다가 그는 당시까지 별로 유례가 없었던 조선사회경제사에 관한 방대한 양의 참고문헌목록을 이 책의 말미에 집어넣어 후학들에게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143) 『獨立新報』, 1947.5.27.
144) 趙東弼, 「近代朝鮮經濟史硏究」, 『京鄕新聞』, 1947.5.25.

둘째는 방대한 사료를 동원한 데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는 철저히 사료에 기반한 실증연구를 추구하였다. 이 때문에 설혹 자신의 논리와 부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이를 그대로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그가 조선의 양잠업을 설명하면서 조선 재래의 석잠누에〔三眠蠶〕가 견층이 얇고 견형이 일정하지 않으며 견량이 적은 열등한 잠종이라는 일본인의 비판적인 견해를 수록하면서도 중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던 독일인이 조선의 견을 중국 산동의 견과 비교해 훨씬 상등이라고 말한 대목도 빠짐없이 수록해 두었다.[145] 또한 蠶蛾가 먹는 뽕나무가 야생종뿐이었다는 일본인의 보고를 기록하면서도 조선정부에서 양잠업 발달을 위해 뽕나무를 계획적으로 재배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뽕나무를 재식하고 이를 관리하며 잠실을 두어 양잠업을 진흥시키려는 조선 관리들의 노력도 지적하였다. 정체성론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보면 논지전개상 불필요한 사료들까지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훗날 후학들의 실증 연구에 의해 정체성론을 극복하는 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최호진은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 엄청난 다작을 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본업인 한국경제사의 연구논문, 그리고 각종의 경제학 교과서, 그리고 평론까지 고려하면 단기간 실로 엄청난 저술을 감행하고 있었다. 그의 주요한 저술의 토대가 거의 이 시기에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불과 몇 년의 짧은 기간 동안 이런 작업이 가능했던 데에는 우선 그가 해방 이전 유학시절에 다져왔던 뜨거운 학구열에 기초한 성실한 연구태도를 꼽을 수 있겠다. 전술하였듯이 그는 유학시절 화폐금융연구실에 배치되어 전공인 경제사뿐만 아니라 화폐금융론, 재정학 등 다방면의 경제학 공부를 치밀하게 해 오고 있었다. 이때부터 상당한 분량의 저술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무엇보다 강단을 지키며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저술활동에 몰두했다고 생각된다.

2. 1950년대의 학술활동

해방 직후 최호진은 정치 활동에 일절 관여하지 않은 채 강단을 지킨다는

145) 이하 별다른 주가 없는 한 崔虎鎭, 앞의 책, 1947, 150-159쪽.

원칙과 제약 아래에서도 크게 보아 백남운의 영향을 받아 학술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학문과 지식을 활용해 신국가건설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국가건설의 과업은 끝내 온전하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분단을 막기 위해 남북간 협상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지만,[146] 남북분단으로 가는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념에 따라 남북으로 갈린 분단 상황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민족 최대의 비극인 한국전쟁으로까지 비화하였다. 이념의 대립과 갈등이 체제 분단을 넘어서 전쟁으로 연결되어 버렸던 것이다. 전쟁 기간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말로는 모두 담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무자비한 약탈과 극도의 폭력에 노출되었고 학살이 일상화되었다.[147] 특히나 아무런 무력을 갖추지 못한 학자들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서도 무기력을 노출할 수밖에 없었다. 양심과 도덕, 그리고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당연히 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폭력을 행사한 정치권력에 대한 분노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계기로 지식인 사회 내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북한에 대한 실망감이 분출했고 그간의 사회 전반에 저류했던 이념 지향적인 태도에 회의감이 터져 나왔다.[148]

최호진도 전쟁 발발 이후 생사를 넘나드는 극도의 초조와 불안 속에 지내야 했다.[149] 때로는 가족들의 안위조차 확인하지 못해 공포와 불안감에 날을 지새워야 했고, 때로는 지근거리에서 포탄이 터져 간신히 살아난 적도 있었다. 실로 구사일생이었다. 그러나 전쟁을 겪으면서 그가 가장 안타까워한 일은 몸을 다친 일 보다도 본디 20년간 모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다"[150]고 말할 정도로 몹시 아끼던 장서 가운데 귀중본 2천여권을 북한군에게 빼앗긴 일이었다.[151]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것

146) 『獨立新報』, 1948.4.29, 7.27.
147) 한국전쟁 당시의 시대 분위기는 김성칠, 『역사 앞에서-한 사학자의 6.25일기』, 창작과비평사, 1993; 이현희, 『내가 겪은 6.25』, 효민디앤피, 2008 참조.
148) 서울대학교 문리대 교수로서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자처했던 김성칠은 한국전쟁 동안 쓴 일기에 "본시 대한민국에 그리 충성된 백성이 아니었"지만 전쟁을 겪으면서 오히려 충성심이 강해졌다고 토로했다. 당시 양심적 지식인들의 분위기가 대체로 이러했다. 김성칠, 앞의 책.
149) 崔虎鎭, 「六.二五와 나의 受難」, 吳制道 編, 『自由를 爲하여』, 文藝書林, 1951, 146-158쪽.
150) 崔虎鎭, 위의 글, 1951, 148-149쪽.

같다.

전쟁의 참혹함을 겪으면서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역시 북한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게 되고 그간 지식인 사회에 퍼져 있었던 이념 지향적인 태도에 회의감을 가졌던 것 같다. 그가 한국전쟁 기간 전쟁 수행, 전쟁 승리를 위해서 단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전시국가가 요망하는 사명 완수에 협조하였던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작용하고 있었다.

우선 그는 1951년 5월 피난지 부산에서 긴급하게 설립된 전시과학연구소에 참여하였다.[152] 이 연구소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이론의 연구, 실천을 위해 당시 지식인들이 대거 참여해 만든 조직이었다. 전시하에 일종의 학술원 역할을 대행하는 기구였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이 연구소의 창립위원을 지냈고, 인문과학연구위원으로 활약했다. 기관지인 『전시과학』의 발행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전쟁은 고등교육의 중단을 가져왔다. 교수도, 학생도 피난을 떠났고 학교 시설은 파괴되었다. 그는 누구보다 학문의 연마, 학자의 양성을 중시하던 지성인이었다. 인력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전쟁으로 인해 중단된 대학교육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951년 2월 부산에 설치된 전시연합대학에 적극 참여하였다.[153] 당시 서울에 본교를 둔 대학들이 학교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라도 시급하게 대학교육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문교부는 우선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 온 교수들을 모아 대한민국교수단을 조직하도록 후원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각 대학의 연합 형태로 전시연합대학을 만들고 학생들은 소속에 상관없이 여기에서 수강하면 소속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비록 열악하지만 각 대학의 교원들을 한 군데로 모으고 이산된 학생들을 불러 모아 임시 시설(부민관, 유휴건물, 개인 사무실, 교수 사택, 창고 등)을 활용해 강의를 개설했다. 응급 처방이었다. 당시 유진오가 이 일을 주도했다. 그는 대한민국교수단의 대표가 되었고, 이어 전시연합대학의 학장을 맡았다. 전시연합대학은 모두 6개 학부와 2개 학과로 편성되었고, 교

151) 최호진, 앞의 책, 1991, 438-439쪽.
152) 김용섭, 앞의 책, 2005, 57-81쪽.
153) 전시연합대학은 최해교, 「전시연합대학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99; 연정은, 「전시연합대학과 학원통제」, 『사림』, 24, 2005; 박선영·김회용, 「한국전쟁기 대학상황의 이해」, 『한국학논집』, 37, 2008 참조.

양과목과 전공과목을 개설하였는데 주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사상교육, 반공교육, 군사훈련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시연합대학 개설에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만큼 학생들이 모이지 않자 학생 모집을 위해 일부 수강자에게는 징집 보류의 혜택까지 주었다. 그 결과 학생들도 제법 모이게 되었다. 본업을 잃어 생존까지 걱정하던 지식인들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강의료를 받아 생계를 해결할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런 응급조치가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다. 1951년 후반기부터 일부 대학들이 임시교사를 자체 확보하여 단독으로 개교하기 시작하면서 1년 뒤에는 해산하기에 이르렀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최호진은 중앙대학교 경상대학에 소속되어 있었다. 1948년 12월 동국대학교 재단의 학교운영 침해에 항의하며 사표를 제출하고[154] 1949년 4월 중앙대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중앙대도 1951년 9월 부산시 소유 송도해수욕장 건물을 빌려 단독으로 임시 개교를 했기 때문에[155] 최호진은 여기에서 강의를 했다. 그 외에도 그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법과대학과 대학원, 연세대학교 상경대학과 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등에서도 강의를 했다. 한국은행 조사부 고문도 겸했다. 월급이 적어 한 대학 강의만으로는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열악했기도 했지만,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대학 강의를 맡을 교수가 턱없이 모자랐다. 이 때문에 당시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여러 대학의 강사, 대우교수, 전임교수 등을 겸임하고 있었다. 최호진은 당시를 아래와 같이 회상하였다.

> 뜻하지 않은 6·25동란이 발발하여 새 나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던 學園들은 부산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피난지에서의 천막 안에서의 戰時聯合大學, 얼마 후에 판자 교사에서의 학원 생활은 참으로 비참하였다. 천막 속에서, 松島 탈의장에서, 그리고 影島 판자집에서의 경제학 강의는 흘러간 대학교단생활에 참으로 보람 있었던 일면이었다고 생각한다. …… 피난지 부산에서의 생활은 해방 30여년간 아니 나의 생애에서 가장 분망하였던 시절이었다. 이곳에 피난오자마자 한국은행에서 일, 정부에서의 일, 신문사의 논설위원으로서의 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과대학, 연희대학교 상경대학(이상 대우교수), 중앙대학 상

154) 『京鄕新聞』, 1948.12.2.
155) 『中央大學敎六十年史』, 中央大學校, 1978, 143-144쪽.

> 경학부장으로서의 일들로 동분서주한 나날이었다. 아직 교수들이 부족한 때라 여러 대학의 강의를 교수의 이름으로 또는 대우교수의 이름으로 겸직을 해야만 하였다.[156]

피난지 부산에서 만난 교수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남하하여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살아가던 비슷비슷한 서로의 처지에 동질감과 깊은 동료의식을 느꼈던 것 같다. 이들은 비참한 학교생활에서도 비교적 격의 없이 만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학문 배경이나 사상을 떠나 높은 결속력을 유지했다.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韓國經濟學會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탄생했다. 한국경제학회의 설립을 주도한 고승제(서울대 상과대학), 신태환(서울대 법과대학), 최호진(중앙대 경상대학)은 각기 원소속은 달랐지만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에서 강의를 맡고 있었다. 아마도 이들은 이런 인연으로 자주 만났던 것 같고, 이런 만남 속에서 경제학 연구자들로 구성된 전문 학회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던 것 같다.[157] 이를 계기로 1952년 11월 30일에는 부산상고 강당에서 창립총회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158] 열악한 시절이라서 서면 안내장도 보내지 못하고 구두 연락에만 의존했지만 60명에 가까운 교수들이 모였다. 전시기 부산에서의 일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였다. 당시 교수들의 결속력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준다. 창립총회에서는 학회의 명칭을 '한국경제학회'로 정하고 기관지의 제목은 『經濟學硏究』로 결정했다. 세 교수 중에서 신태환 교수가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고 임원진도 위촉되었다.[159] 한국경제학회의 정식 발족을 계기로 1953년 8월에는 『경제학연구』의 창간호가 발간되었다.[160] 이와 같이 최호진은 이 학회의 창립에 크게 기여했을

---

156) 崔虎鎭, 「나의 敎壇履歷」, 『韓國의 社會와 經濟』, 博英社, 1984, 44-45쪽.

157) 고승제의 회고에 의하면, 1952년 4월 5일 부산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제6회 졸업식 뒤에 경제학과 졸업생들과의 저녁식사를 마치고 세 학자는 광복동 서쪽 어느 다방에 모여 학회 결성의 뜻을 모았다고 한다. 한국경제학회의 탄생 과정은 高承濟, 앞의 책, 1979, 85-97쪽; 申泰煥, 앞의 책, 1983, 237쪽; 崔虎鎭, 「나의 敎壇履歷」, 『韓國의 社會와 經濟』, 博英社, 1984, 45쪽; 『한국경제학회 60년 연표』, 한국경제학회, 2012, 3-4쪽 참조. 최호진과 고승제의 관계는 『名士交遊圖 第1卷』, 週刊시민社出版局, 1977, 325쪽 참조.

158) 고승제는 1952년 4월 23일 10시 부산상고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회고하였는데, 여기에서는 한국경제학회의 공식 견해에 따랐다.

159) 초대회장은 신태환, 평의원은 신태환, 고승제, 최호진, 조동필, 조기준, 성창환, 오덕영, 감사는 김준보, 김두희, 초대총무는 오만식이었다.

뿐만 아니라 1954년 11월 2대 회장에 취임한 이래 1978년 12월까지 무려 24년간 회장직에 재임하면서 학회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한편, 전쟁으로 인한 지식인들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나아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학자들의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1952년에는 문화보호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근거해 과학자들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원 설립의 길이 열렸다.[161] 그 후로도 실제 설립에는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어 1954년 6월에서야 학술원은 창립되기에 이르렀다. 창립 당시 초대 회원은 인문과학부와 자연과학부를 합쳐 62명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소수만이 학술원 회원에 임명되었는데, 최호진은 경제학계 대표로서 인문과학부 제6분과회(경제학) 회장을 맡았고, 고승제는 회원이 되었다. 경제학 회원은 단 둘 뿐이었다.

최호진은 이런 학술계 활동 이외에 저술에도 힘을 기울였다. 우선 경제학 교과서를 펴냈는데, 새로이 교과서를 발간하기 보다는 기존에 쓴 교과서의 개정판을 만들어 보강하는 작업에 치중하였다. 전술하였듯이 1940년대 후반 최호진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경제학 지식의 보급을 위해 경제학개설서로서 『경제학대요』와 『경제원론』을 발간했는데, 이 때에는 여기에 기초를 두면서도 일반인들이 더 알기 쉽도록 수정한 책을 발행하였다. 1953년 5월 10일 『經濟學』이라는 제목으로 펴낸 소책자가 바로 그것이었다.[162] 그는 이 책 서문에서 『경제학대요』는 초학자에게 무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경제학대요』를 전반에 걸쳐 개수하여 작은 책자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정학 교과서도 이런 시각에서 개정판을 발행하였다. 우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판형이 손실되어 기존의 『재정학』 책을 1952년에 판본만 교체하여 그대로 재발행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1953년 10월 10일에는 앞서의 책을 더욱 알기 쉽게 풀어써서 일한도서라는 출판사에서 『재정학입문』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하기에 이르렀다.[163]

---

160) 고승제는 이 학회지 발간을 두고 "내가 피난살이 속에서 거두었던 유일한 보람거리"라고 회고했다. 고승제, 앞의 책, 88쪽.

161) 김용섭, 앞의 책, 2005, 103-140쪽.

162) 崔虎鎭, 『經濟學』, 博文出版社, 1953.

163) 그런데 같은 날짜에 동일한 책을 『재정학개론』이라는 제목으로도 출판했다. 양자는 거의 같은데 다만 『재정학입문』은 정가가 270원, 『재정학개론』은 정가가 450원으로 가격만 달랐다. 아마도 책 가격 문제 때문에 급하게 다시 발행한 것이 아

이와 함께 그는 본업인 조선후기 경제사 연구서를 보강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이미 그는 1947년에 조선후기 농업생산력을 다룬 『근대조선경제사 연구 제1권』을 발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의 보강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기존의 논문들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친 뒤 이를 엮어 새로운 책의 전편으로 삼고[164] 후편에는 새로이 쓴 고리대 관련 연구논문을 추가하였다.[165] 이를 1958년에 동국문화사에서 『近代韓國經濟史硏究』라는 제목의 책으로 발간하였다.[166] 전편의 제3장을 일부 고치긴 했지만, 기존의 책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논지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새로이 추가된 후편에서 그는 고리대에 대해 "이조봉건사회의 모세관을 완전히 폐쇄하고 역사적 운명을 위축"시키는 작용을 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고리대는 "역사를 새로히 창조하려는 素因"이 될 수 없고 "토지를 중심으로 하고 자급자족적 자연경제를 지반으로 하는 단순상품생산의 유치함에 조응한" "부차적인 수취형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940년대 이래 그가 견지하고 있었던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에 의거한 정체성론의 연장에서 고리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처럼 그의 연구는 정체성의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수전농경이 중심인 우리나라 농업은 그 특성상 물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집단방어가 필요하여 원시공동체의 유제가 조선말기까지 잔존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서구의 전형적인 노예제가 발달하지 못하였고, 봉건사회도 중앙집권적, 관료적, 전제적 성격을 띠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무기력한 한국 농민의 기질이나 집약적, 협업적인 노동조직은 이 때문이며, 농업노동의 집약화가 농기구의 단순화와 불완전성을 초래했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영세농민에 대해

닐까 한다. 崔虎鎭, 『財政學入門』, 日韓圖書, 1953; 崔虎鎭, 『財政學槪論』, 日韓圖書, 1953.

164) 전편의 제1장과 제2장은 崔虎鎭, 「李朝사회에 있어서의 勞動力問題」, 『中央大學校三十周年記念論文集』, 中央大學校, 1955; 제3장은 崔虎鎭, 「李朝封建社會에 있어서의 共同勞動의 特性」, 『서울大學校論文集』, 1, 1954; 제4장은 崔虎鎭, 「舊朝鮮末 農業에 있어서 勞動器具의 停滯性硏究」, 『經濟學硏究』, 2-1, 1954; 崔虎鎭, 「舊來韓國 農耕에 있어서의 役畜과 肥料의 經濟的 意義」, 『庸齋白樂濬博士還甲記念論文集』, 思想界社, 1955.

165) 후편 제1장은 崔虎鎭, 「李朝後期에 있어서의 高利貸付資本의 特徵과 技能」, 『中央大論文集』, 2-1, 1957; 제2장은 崔虎鎭, 「李朝後期에 있어서의 高利貸付資本階層」, 『經濟學硏究』, 5-1, 1957.

166) 崔虎鎭, 『近代韓國經濟史硏究』, 東國文化社, 1958.

국가권력, 관료, 상인들까지 가세해 고리대로 착취하고 있는 현실이 조선말기 사회의 실상이었다. 이렇게 심각한 정체적, 후진적 사회였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에 쉽게 식민지로 전락해 버렸던 것이다. 이러한 저자의 논리는 1960년대에 들어서 통사인 『韓國經濟史槪論』으로 체계화되어 원시공동체사회에서 동양적 고대사회(삼국)를 거쳐 동양적 봉건사회의 성립(통일신라), 발전(고려), 완성(조선)을 지나 동양적 봉건사회의 해체(일제시기)로 이어지는 시대구분방식이 최종 완성되었다.[167]

그러나 이 당시 저자의 연구경향은 연구사의 긴 시각으로 보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전술하였듯이 한국에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은 원래 조선말기의 정체성을 규명하여 식민지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민족해방을 전망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고, 장래 도래하는 신사회로 이행하는 동력을 확보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강한 역사적 실천의식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애초부터 '아시아적'이라는 특수성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이 '특수성=정체성'의 농도에 따라서는 보편적인 세계사적 발전법칙의 관철 자체를 부정하는 이론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었다. 게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식민지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던 일본인 관학자들의 '정체성론'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결론으로 귀결될 가능성마저 안고 있었다.[168]

이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백남운은 조선후기부터 이미 봉건제가 해체되고 자본주의로 이행하려는 움직임, 즉 '내재적인' 한국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단초나마 언급하고 있었으며, 1960년대 들어서 신진 학자들에 의해서 식민사관의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으로 왜곡된 역사상을 바로잡고 한국인이 주체가 되어 전개되어 온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종래 '조선후기=정체적 사회'라는 인식은 크게 바뀌었다.[169] 이른바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한 이 연구들은 단순한 이론 제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료의 발굴에 입각한 한층 더 정밀하고 수

167) 이 책의 연구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홍성찬, 앞의 글, 2011, 332-336쪽 참조. 이러한 시대구분의 큰 얼개는 이미 1950년대 중반에 확립되어 있었다. 崔虎鎭, 「李朝封建社會에 있어서의 共同勞動의 特性」, 『서울大學校論文集』, 1, 1954, 229-230쪽.

168) 盧鏞弼, 앞의 글.

169) 김인걸, 「1960,70년대 '내재적 발전론'과 한국사학」, 『韓國史 認識과 歷史理論』, 지식산업사, 1997; 이영호, 「'내재적 발전론' 역사인식의 궤적과 전망」, 『한국사연구』, 152, 2011.

준이 높은 실증 연구를 통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 결과 그가 오랜 시간을 들여 문제제기해 왔던 정체성론은 연구사적으로 극복대상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연구가 극복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 소중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그의 아시아적 정체성 규명 작업은 철저히 방대한 사료 위에서 치밀한 실증 작업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료에 기반한 실증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경우 그의 논리와 배치되는 현상들이 검출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1960년대 이후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한 새로운 연구들은 수준 높은 실증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정체성론 극복은 이미 최호진 자신이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었던 사료에 기반한 실증 연구 태도에서 시작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그는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한 새로운 연구들에 의해 자신이 견지했던 '아시아적 정체성론'이 도전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대한 시각으로 포용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래 자신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이를 극복하는 일이 앞으로의 연구 경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자신의 연구를 디딤돌로 하여 새로운 학문으로 발전하는 길을 앞장서서 열어 주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연구 태도는 평범한 학자들이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에 있었다.

> 본 저서〔근대한국경제사연구(1958)〕는 이른바 동양사회 정체론의 여파가 아직도 우리 학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던 시기에 저술된 것이어서 1950년대 말까지 본 도서는 우리 학계에서 주요한 연구성과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었다. 그러나 6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한국경제사에 뜻을 둔 소장학자들이 늘어나고, 또 새로운 사료의 발굴 등으로 그들의 연구가 본격화됨에 따라 종래의 학계 동향과 견해에 대하여 차츰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저자 스스로도 학회나 대학 강단 등에서 종래의 견해에 대해 회의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금후의 연구과제가 정체론의 극복에 있음을 후진들에게 강조하기도 했다. 그 결과, 60년대 이후 우리의 경제사학계는 종래의 식민지사관이나 정체성이론 등에 입각한 연구동향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각의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고, 오늘에 와서는 적지 않은 연구성과도 거두게 되었다. 이러한 결

과론적 차원에서 볼 때 본 저서는 우리 한국경제사 분야의 본격적인 연구를 자극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후진들로 하여금 새로운 연구시각을 갖게 한 계기적 역할을 수행했다고도 볼 수 있다.[170]

Ⅳ. 맺음말

본고는 권력과 금전의 유혹에 초연한 자세를 유지한 채 오로지 강단과 연구실을 지키며 후학 양성과 연구에 매진해 한국 경제학의 발달과정에서 큰 업적을 남긴 崔虎鎭을 대상으로 그의 학문세계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사례연구로 검토한 논문이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최호진은 성장과정을 거치며 집안 내력과 관련하여 투철한 배일의식을 포지하고 있었는데, 제일고보 시절 동맹휴학을 겪으며 이러한 배일의식은 더욱 강화되어 갔다. 우여곡절 끝에 들어간 보성전문 법과에서 그는 유진오, 최용달, 김광진, 윤행중 같은 당시 갓 부임한 젊은 교수진으로부터 사회주의를 습득하고 이를 민족해방을 전망할 이론적 대안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보전 상과의 김광진과 연전 상과의 백남운이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을 한국경제사에 적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자 이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경제사연구에 뜻을 굳히고 나름의 연구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그는 九州제대 유학시절 전공을 법학에서 경제학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그가 수학한 九州제대 경제학과는 당초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이 재직하며 학풍을 주도하고 있었지만, 이 시기에는 이들의 퇴진에 따라 점차 신고전학파, 케인스경제학 등의 세력이 강고해지면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대등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이를 배경으로 그는 이 학교에서 당대 세계학계의 유력한 경제이론들을 비교적 균형 잡힌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특히 그의 지도교수 波多野는 진보적인 학자이면서도 자본론과 국부론 모두를 정독시킬 정도로 좌우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경제학 연구를 강조하였는데, 그는 이러한 연구태도에 큰 영

170) 『현대한국의 명저 100권』, 동아일보사, 1985, 282-284쪽.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성실한 연구태도로 波多野 교수의 각별한 신임과 후원을 얻어 대학원 시절 조수와 대학원특별연구생에 선발되기도 했다.

한편, 그는 九州제대 시절 교우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받아 입학 동기 김준보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열성적인 학업태도를 형성하였다. 당시 그는 수면시간을 줄여가며 연구에 매진해 동료들에게 '학구파 중의 학구파'로 알려져 있었다. 이러한 학구열의 결과 1942년에 『근대조선경제사』를 발간하는 데에 이르렀다. 이 책의 출간은 전시말 완전한 침체상태에 있던 한국의 학술계에 큰 자극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그의 이름은 국내에도 널리 알려졌다. 그는 이 책에서 사적유물론에 기반한 역사 연구를 시도하며 조선말기의 '동양적 정체성' 해명에 주력하였다. 이는 사실상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을 전제한 것이었지만, 아직 이 이론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고 상업사, 금융사의 실태 분석에 치중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이 책의 저술에 당시까지 별로 이용되지 않았던 사료를 대거 동원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평소 존경하던 학계의 거목 백남운을 만나게 된 최호진은 해방 이후 백남운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해방 직후 그는 백남운의 주도로 설립된 조선학술원에서 실무진으로 참여하고,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약하였다. 지식인은 자신이 가진 학문과 지식을 활용해 신국가건설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해 적극 동참하였던 것이다. 한편, 그는 경성대학의 재건에도 참여해 신설된 경제학과의 교수에 임용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는 경성대학 경제학과를 한국 최고의 경제학 고등교육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해방 직후 일본어강의에서 한국어강의로 바뀌는 전환기에 처해 한국어 교과서 발행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해 직접 대학 교재를 저술하는 데에 앞장섰다. 일반경제사(경제사대강), 화폐론강의(화폐금융론), 경제학대요(경제원론), 재정학 등은 이렇게 해서 발간된 책이었다. 특히 일반경제사는 사적유물론에 입각하여 생산관계의 역사를 정리한 책으로서 역사학의 실천적 의의를 강조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당시 사회주의에 기울어져 있었던 학술계의 환호를 받았으며 일반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경제사연구에도 매진하여 『근대조선경제사』의 연장선에서 『근대조선경제사연구 제1권』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이 책에

서 봉건제사회로부터 자본제사회로의 이행기를 검토하여 자본제사회의 붕괴와 새로운 생산단계로의 이행을 전망하였다. 또한 그는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아시아적 정체성'을 해명하는 데에 연구의 목표를 두었다. 그 결과 조선말기 농업에서 노동력, 노동과정 조직, 노동수단의 특질을 검토하여 '조선말기=정체된 사회'라는 연구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는 이 책의 저술을 위해 그간 활용되지 않은 방대한 사료를 동원하는 한편, 철저히 사료에 기반한 실증연구를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설혹 정체론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들이 등장하여도 이를 있는 그대로 수록하였다. 이는 후학들의 실증연구에 의해 정체성론이 극복될 단초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 직후 활발하게 전개되던 그의 학술활동은 위기에 봉착하였다. 경성대학의 대학자치와 국대안 문제를 두고 이에 항의하는 경제학과장 백남운을 비롯한 학과 교수 전원의 사표가 제출되었고, 결국 경성대학 경제학과는 폐과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로써 백남운은 분단을 막고 통일된 자주독립국가 건설에 전념하고자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제기하며 정치에 몰두하였다. 최호진에게도 정계 입문을 적극 권유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 배경에는 연구와 강의를 통해서 학자를 양성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였던 평소의 신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강단과 연구실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 이런 시각에서 학교, 학자, 학생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세력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 시기 그는 백남운의 학문적, 사상적 동반자 역할은 받아들였지만, 정치적 동반자 역할은 사양하고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최호진의 사상은 변화를 맞았다. 전쟁기간 무자비한 약탈, 극도의 폭력이 지속되었고 학살은 일상화되었다. 개인적으로도 가족들의 안위에 대해 공포,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고, 몸을 다치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일도 있었다. 게다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던 책을 북한군에게 빼앗긴 일도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겪으며 그는 전쟁을 일으킨 북한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되었고, 이후 전쟁 승리를 위한 단결과 사명 완수를 중시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가 전시하 부산에서 설립된 전시과학연구소나 전시연합대학에 적극 참여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그는 당시 원소속인 중앙대뿐만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동국대 등에서 강의를 맡아 후학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전시하 부산에서 창립된 한국경제학회의 설립을 주도하여 장기간 회

장직을 맡기도 하였다. 한국의 학술계를 대표하는 학술원 회원으로도 활약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는 전쟁 이전에 편찬한 교과서의 개정판을 발간하기도 하고 일반인도 알기 쉽게 만든 경제학 책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전공인 조선후기 경제사연구도 보강하여 『근대한국경제사연구』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였다. 이 책 역시 앞서의 책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에 의거한 정체성 규명에 연구목표를 두어 '조선후기=정체된 사회'라는 결론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 아래 그는 한국사 전체를 원시공동체사회에서 동양적 고대사회(삼국)를 거쳐 동양적 봉건사회의 성립(통일신라), 발전(고려), 완성(조선)을 지나 동양적 봉건사회의 해체(일제시기)로 이어지는 시대구분방식의 큰 틀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저자의 이러한 '정체성론'은 '아시아적'이라는 특수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특수성의 농도에 따라서는 보편적인 세계사적 발전법칙의 관철을 부정하는 이론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 식민지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던 일본인 관학자들의 '정체성론'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결론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런 배경 아래 일제시기부터 백남운에 의해 한국사회의 '내재적인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단초가 언급되어 왔고, 1960년대에 들어서 신진 학자들에 의해 일제 관학자들의 타율성론, 정체성론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인이 주체가 되어 전개되어 온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한 연구들이었다.

결국 이 새로운 연구들에 의하여 그의 연구는 극복대상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연구사의 긴 흐름에서 보면 그의 연구는 그 나름대로 소중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아시아적 정체성 규명은 철저히 방대한 사료 위에 치밀한 실증 작업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그의 연구 태도는 후학들의 수준 높은 실증 연구로 이어져 정체성론 극복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정체성론 극복은 최호진 자신의 연구 태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그는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한 새로운 연구들에 의해 자신이 주장하는 '아시아적 정체성론'이 도전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관대한 시각으로 포용하고, 오히려 자신의 연구를 디딤돌로 하여 새로운 학문으로 발전하는 길을 앞장서서 열어주고자 노력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연구 태도는 평범한 학자들의 영역을 벗어난 경지에 서 있었다.

투고 일자: 2014. 11. 17. 심사 및 수정 일자: 2014. 12. 14. 게재 확정 일자: 2014. 12. 14.

◈ 참고문헌 ◈

Ⅰ. 자료
『皇城新聞』.
『東亞日報』.
『朝鮮日報』.
『每日申報』.
『朝鮮敎育新聞』.
『官報』.
『東方評論』.
『新東亞』.
『普專學會論集』.
『東光』.
『靑年朝鮮』.
『自由新聞』.
『獨立新報』.
『京鄕新聞』.
『每日經濟新聞』.
『學術』.
『民衆朝鮮』.
『民族文化』.
『새法政』.
『雲科榜目』.
『醫科榜目』.
『法科成績表』, 普成專門學校, 1935~1937.
『普成專門學校一覽』, 普成專門學校, 각년도판.
『東京商科大學一覽』, 東京商科大學, 각년도판.
고려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2008), 『고려대학교100년사Ⅰ』, 고려대학교출판부.

高承濟 (1979),『經濟學者의 回顧』, 經研社.
具鎔書 (1981),『財界回顧 9』, 한국일보社出版局.
國史編纂委員會 편 (1972),『大韓帝國官員履歷書』, 探求堂.
김병희 (1998),『80인생을 회고한다』, 私家版.
김성칠 (1993),『역사 앞에서-한 사학자의 6.25일기』, 창작과비평사.
金鍾大 (1990),『靜觀自得』, 圖書出版 創造.
박병엽 구술 (2010),『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 선인.
서울校洞國民學校百年史編纂委員會 編 (1994),『校洞百年史』, 서울校洞國民學校同窓會.
宋基澈 (2004),『高麗大學校와 나』, 保景文化社.
申泰煥 (1983),『大學과 國家』, 亞細亞文化社.
_____ (1976),『想念의 길목에서』, 正宇社.
_____ (1983),『한국경제학의 제문제』, 전예원.
吳天錫 (1974),『老兵의 오솔길』, 大韓教育聯合會.
_____ (1975),『외로운 城主』, 光明出版社.
兪鎭午 (1977),『養虎記』, 高麗大學校出版部.
_____ (1978),『젊음이 깃 칠 때』, 徽文出版社.
이현희 (2008),『내가 겪은 6.25』, 효민디앤피.
趙璣濬 (1998),『나의 人生 學問의 歷程』, 日新社.
최병현 (1992),『강변에 앉아 울었노라-뉴욕한인교회70년사』, 깊은샘.
경기구십년사편찬위원회 (1990),『京畿九十年』, 京畿高等學校同窓會.
경기고등학교동창회 (2000),『경기인백년사』, 京畿高等學校同窓會.
九州大學創立五十周紀念會 (1967),『九州大學五十年史 通史』, 九州大學創立五十周紀念會.
_____ (1967),『九州大學五十年史 學術史 下卷』, 九州大學創立五十周紀念會.
九州帝國大學 (1936),『九州帝國大學要覽』, 九州帝國大學.
杞溪兪氏大同譜編纂委員會 (1991),『杞溪兪氏族譜 第4卷』, 回想社.
국립중앙도서관 (1993),『나를 감동시킨 이 한권의 책』, 국립중앙도서관.
安龍植 (1995),『大韓帝國官僚史研究(Ⅱ)』, 延世大學校社會科學研究所.
_____ (1995),『大韓帝國官僚史研究(Ⅲ)』, 延世大學校社會科學研究所.
주간시민사편집국 (1977),『名士交遊圖 第1卷』, 週刊시민社出版局.
김경일 편 (1993),『民族解放運動史資料集 4』, 영진문화사.
全州崔氏十修世譜編纂委員會 (2003),『全州崔氏十修世譜 1卷』, 全州崔氏十修世譜編纂委員會.

_____ (2003),『全州崔氏十修世譜 2卷』, 全州崔氏十修世譜編纂委員會.
중앙대학교 (1978),『中央大學敎六十年史』, 中央大學校.
한국경제학회 (2012),『한국경제학회 60년 연표』, 한국경제학회.
동아일보사 편 (1985),『현대한국의 명저 100권』, 동아일보사.

高木幸子, 荒牧正憲 編 (1982),『高木暢哉 : 人と學問』, 九州大學出版會.
多多良三平 (1931),『九州帝大人物風景』, 國際書院.
石川捷治 編 (2002),『朝鮮半島から九州大學に學ぶ』, 九州大學韓國硏究センター.

Ⅱ. 최호진의 논저

崔虎鎭 (1946.3),「新朝鮮建設과 知識階級의 使命」,『民心』, 2.
_____ (1946.4),「朝鮮人의 勞動力上의 特質(一)」,『殖銀調査月報』, 1-1.
_____ (1946.8),「朝鮮人의 勞動力上의 特質(二)」,『殖銀調査月報』, 1-2.
_____ (1947.4),「近代朝鮮에 있어서의 生産力으로서의 農業用 勞動手段에 關한 硏究」,『民族文化』, 3.
_____ (1957),「李朝後期에 있어서의 高利貸付資本의 特徵과 技能」,『中央大論文集』, 2-1.
_____ (1954),「李朝封建社會에 있어서의 共同勞動의 特性」,『서울大學校論文集』, 1.
_____ (1954),「舊朝鮮末 農業에 있어서 勞動器具의 停滯性硏究」,『經濟學硏究』, 2-1.
_____ (1955),「李朝사회에 있어서의 勞動力問題」,『中央大學校三十周年記念論文集』, 中央大學校.
_____ (1955),「舊來韓國 農耕에 있어서의 役畜과 肥料의 經濟的 意義」,『庸齊白樂濬博士還甲記念論文集』, 思想界社.
_____ (1957),「李朝後期에 있어서의 高利貸付資本階層」,『經濟學硏究』, 5-1.
_____ (1942),『近代朝鮮經濟史』, 慶應書房.
_____ (1946),『一般經濟史』, 理想書院.
_____ (1947),『近代朝鮮經濟史硏究 第一卷』, 民衆書館.
_____ (1947),『經濟史大綱』, 東邦文化社.
_____ (1947),『貨幣論講義』, 民衆書館.
_____ (1948),『經濟原論』, 博文書館.
_____ (1948),『經濟學大要』, 白楊堂.

_____ (1948), 『經濟史』, 博文出版社.
_____ (1949), 『財政學』, 白楊堂.
_____ (1949), 『貨幣金融論』, 博文出版社.
_____ (1950), 『學生과 學園』, 首都文化社.
_____ (1953), 『財政學入門』, 日韓圖書.
_____ (1953), 『財政學槪論』, 日韓圖書.
_____ (1953), 『經濟學』, 博文出版社.
_____ (1958), 『近代韓國經濟史硏究』, 東國文化社.
_____ (1948.2), 「現下學生에게 告함」, 『新天地』, 3-2.
_____ (1951), 「六.二五와 나의 受難」, 吳制道 編, 『自由를 爲하여』, 文藝書林.
_____ (1957.7), 「나의 學窓時節」, 『財政』, 250.
_____ (1984), 『韓國의 社會와 經濟』, 博英社.
_____ (1991), 『나의 학문 나의 인생』, 매일경제신문사.
_____ (2000), 「일제말 전시하에서의 학문편력과 해방 후 경제학과 창설」, 『학문의 길 인생의 길』, 역사비평사.
_____ (2001), 『한국경제 50년 논선』, 전3권, 세경사.

Ⅲ. 피인용문헌

강명숙 (2002), "해방직후 대학 교수 충원의 실태," 『교육사학연구』, 12.
_____ (2003), "미군정기 사립대학 설립과 고등교육기회의 확대," 『아시아교육연구』, 4-1.
_____ (2004), "1945~1946년의 경성대학에 관한 시론적 연구," 『교육사학연구』, 14.
_____ (2004), "국립서울대학교 설립 과정에 대한 재론," 『한국교육사학』, 26-1.
_____ (2013), "대학의 제도적 기반 형성과 학술 여건(1945~1955)," 『한국근현대사연구』, 67.
姜晋哲 (1992), "日帝官學者가 본 韓國史의 停滯性과 그 理論," 『韓國社會의 歷史像』, 一志社.
_____ (1992), 『韓國社會의 歷史像』, 一志社.
김경미 (2006), "식민지 교육 경험 세대의 기억," 방기중 편, 『식민지 파시즘의 유산과 극복의 과제』, 혜안.
김경일 (2004), 『한국 근대 노동사와 노동 운동』, 문학과지성사.
김 균·이헌창 편 (2005), 『한국 경제학의 발달과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출판부.

김기석 (1997), "국립서울대학교의 창설에 관한 일 연구,"『한국 교육의 성장과 개혁』, 羅汕朴容憲教授停年記念論文集刊行委員會.

김두헌 (2001),『기술직 중인 신분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02), "개항 이후(1876~1894년)의 잡과와 주학 입격자 신분,"『대동사학』, 1.

_____ (2008), "19세기 운학 완천 합격자와 그들의 가계,"『전북사학』, 33.

_____ (2010), "『姓源錄』을 통해서 본 서울 중인 가계 연구,"『서울학연구』, 39.

金性玟 (2004), "1920년대 후반 서울지역 학생운동의 조직과 성격,"『한국근현대사연구』, 31.

김용섭 (2005),『남북 학술원과 과학원의 발달』, 지식산업사.

김인걸 (1997), "1960,70년대 '내재적 발전론'과 한국사학,"『韓國史 認識과 歷史理論』, 지식산업사.

김현목 (1999), "한말 역학생도의 신분과 기술직 중인의 동향,"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한국근대이행기중인연구』, 신서원.

金鎬逸 (1989), "1930년대 항일학생운동의 연구,"『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盧鏞弼 (2010), "森谷克己의 植民主義 社會經濟史學 批判,"『韓國史學史學報』, 22.

박선영・김회용 (2008), "한국전쟁기 대학상황의 이해,"『한국학논집』, 37.

朴哲熙 (2002),『植民地期 韓國 中等教育 硏究-1920~30年代 高等普通學校를 中心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朴炯振 (2012), "1930년대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과 과학적 조선학 연구-이청원의 식민지기 학술활동과 논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방기중 (1992),『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_____ (1994), "白南雲의 學問과 思想,"『延世經濟硏究』, 1.

_____ (1996), "일제하 李勳求의 農業論과 經濟自立思想,"『역사문제연구』, 1.

_____ (2010), "내재적 발전론의 전진을 위한 방법론적 고찰,"『조선후기 경제사론』, 연세대학교출판부.

백남운/하일식 역 (1993),『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 1』, 이론과실천.

宋萬午 (1999),『韓國의 近代化에 있어서 中人層의 활동에 관한 硏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연정은 (2005), "전시연합대학과 학원통제,"『사림』, 24.

오대록 (2011), "일제강점기 常山 金度演의 현실인식과 민족운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 38.

吳鎭錫 (2011), "일제하・미군정기 韓昇寅의 政治活動과 經濟認識,"『연세경제연구』, 8-1.

윤기중 (1997), “1920년대와 1930년대의 한국경제학계 동향,”『延世經濟硏究』, 4-2.
_____ (1998), “백남운의 학문세계와 사상,”『한국현대사연구』, 창간호.
_____ (2000), “한국경제사에 전념한 최호진,”『학문의 길 인생의 길』, 역사비평사.
_____ (2012), “金俊輔 선생님을 추모하며,”『학술원회보』, 174, 2008; 윤기중, “김준보, 한국 농업경제학의 거목,”『한국사시민강좌』, 50.
이공순 (1992), “김광진-식민지 반봉건의 기치를 들다,”『발굴 한국현대사인물 3』, 한겨레신문사.
_____ (1992), “백남운-마르크스주의 조선경제사의 시작과 완성,”『발굴 한국현대사인물 2』, 한겨레신문사.
李基俊 (1983),『敎育韓國經濟學發達史』, 一潮閣.
_____ (1985),『韓末西歐經濟學導入史 硏究』, 一潮閣.
_____ (1987), “韓末의 西歐經濟學導入과 日帝下의 經濟學,”『經濟論集』, 26-4.
이남희 (1999), “조선후기 ‘잡과중인’의 사회적 유동성,”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한국근대이행기중인연구』, 신서원.
이문웅 (2008), “강정택 선생의 생애와 학문세계,”『식민지 조선의 농촌사회와 농업경제』, YBM Si-sa.
이상호 (2009), “윤행중의 ‘이론경제학’과 한국의 맑스주의,”『韓國人物史硏究』, 11.
이수일 (1991), “일제강점・해방기 印貞植의 경제사상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_____ (1996), “일제하 박문규의 현실인식과 경제사상 연구,”『역사문제연구』, 1.
_____ (1997), “1920~1930년대 한국의 經濟學風과 經濟硏究의 동향-延專 商科 및 普專 商科 중심으로,”『延世經濟硏究』, 4-2.
_____ (2000), “1920年代 중후반 維石 趙炳玉의 民族運動과 現實認識,”『역사와실학』, 15・16.
_____ (2001), “美國 유학시절 維石 趙炳玉의 활동과 ‘近代’의 수용,”『典農史論』, 7.
_____ (2013),『1930년대 전반 ‘성대그룹’의 반관학 이념과 사회운동론』,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_____ (2088), “유진오와 최용달,”『남과 북을 만든 라이벌』, 역사비평사.
李昇輝 (1988), “1930年代 日本에서의 아시아的 生産樣式論爭,”『서울대 東洋史學會論集』, 12.
이영록 (2006),『유진오 헌법사상의 형성과 전개』, 한국학술정보(주).
이영호 (2011), “‘내재적 발전론’ 역사인식의 궤적과 전망,”『한국사연구』, 152.
임영태 (1989), “북으로 간 맑스주의 역사학자와 사회경제학자들,”『역사비평』,

6, 303-306.
林在讚 (1992),『舊韓末 陸軍武官學校 硏究』, 第一文化社.
정근식 외 (2011),『식민지권력과 근대지식 : 경성제국대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정선이 (2002),『경성제국대학 연구』, 문음사.
정준영 (2013),“해방 직후 대학사회 형성과 학문의 제도화,”『한국근현대사연구』, 67.
조기준 (1986),“韓國 經濟學의 始原에 관한 硏究,”『近代西歐學問의 受容과 普專』, 고려대학교출판부.
崔光晩 (1990),“國大案 觀徹에 관한 再考,”『敎育史學硏究』, 2・3.
최재현 (1990),“맑스주의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역사비평』, 10.
최해교 (1999),“전시연합대학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최혜월 (1988),“미군정기 국대안반대운동의 성격,”『역사비평』, 1.
홍선표 (2009),“해방 이전 대한인동지회의 조직과 활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홍성찬 (1996),“한국 근현대 이순탁의 정치경제사상,”『역사문제연구』, 1.
_____ (1997),“曉亭 李順鐸의 생애와 사상,”『延世經濟硏究』, 4-2.
_____ (2005),“일제하 연전 상과의 경제학풍과 ‘경제연구회’ 사건,”『근대학문의 형성과 연희전문』, 연세대학교출판부.
_____ (2011),“최호진의 경제사 연구와 저술의 사회사: 1940~60년대,”『동방학지』, 154.
洪淳權 (1994),“1930년대 한국의 맑스주의 역사학과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東亞論叢』, 31.
홍종욱 (2007),“해방을 전후한 경제통제론의 전개-박극채・윤행중을 중심으로,”『역사와현실』, 64.

高仁淑 (2002),「日本の大學に入學したアジア人留學生の追跡調査硏究-九州帝國大學への朝鮮人留學生を中心に」,『大學院敎育學硏究紀要』, 5.
渡部恒夫 (2003),「波多野鼎の社會政策論における社會政策と最小限綱領の未分化・混同問題」,『鹿兒島經濟論集』, 44-1.
西村正守 (1986),「第2次大戰末期における大學院特別硏究生制度を回顧して」,『レファレンス』, 36-12.

The Academic World and Activities of Choi Ho-chin in the 1930s to 1950s

Jin Seok Oh*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academic world and career of Choi Ho-chin, who had a profound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both the field and the later scholars of Korean economics. Choi Ho-chin was well-known for keeping his research and lectures against the influence of both political power and money. Due to his family background, Choi had anti-Japanese sentiments from a young age and observed the debate between Kim Gwang-jin and Paik Nam-woon on the Asiatic mode of production while studying at Bosung College. He decided to study economic history and find his own research path. While studying at Kyushu Imperial University, he switched his major to economics and pursued a systematic, but comparatively balanced, study of the main economic theories of the day. Choi Ho-chin was particularly influenced by his academic adviser, Hatano Kanae, who required him to closely read *The Wealth of Nations* and *Das Kapital*, while maintaining a balanced perspective in his economic research. The results of his experience studying abroad were apparent in his work published in 1942, *Modern Joseon Economic History*. After Liberation in 1945, Choi was influenced by Paik Nam-woon to use his studies and knowledge in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nation. Choi Ho-chin participated in the Joseon Academy and the National

* Associate Professor, Appenzeller School of Public Policy, Paichai University, e-mail: jamesoh@pcu.ac.kr

Culture Research Institute, as well as becoming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t Gyeongseong University. He published various economics textbooks in Korean and continued with his research into Korean economic history, publishing volume one of his *Studies of Modern Joseon Economic History*. In this book, he used the Asiatic mode of production to explain the "Asian stagnation" of Korean society. However, his "stagnation theory" was based on a particularly Asian characteristic, which could be used to challenge the conventional perspective on the principles of global development. Consequently, his research influenced scholars in the 1960's who advanced "internal development theory" in order to overcome his research.

KRF Classification: B030106
Key Words: Choi Ho-chin, Paik Nam-woon, Kim Gwang-jin, *Modern Joseon Economic History*, the Asiatic mode of production